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이를 버리고 중도를 지켜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3월 28일)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전법포교 원력 세우다

조계종 포교원, 5월 6일 포교 원력 선포식

포교신도단체 500여 명 참석
‘전법 ON’ 슬로건으로 제시해
상월결사 정신 이어 원력 결집
“청년불자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과 각종 포교 · 신도단체들이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 는 포교 원력을 새겼다.

포교원(원장 범해)은 5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포교 · 신도단체들과 ‘전법 ON! 부처님 법 전합시다’ 라는 주제로 포교 원력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일선 포교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부대중의 자긍심을 높이고, 풀뿌리 불심을 결집해 지역 · 계층 포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범해 스님,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 스님, 전국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전법단 단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모였다.

포교원의 포교 원력 선포는 앉아있는 불교가 아닌 찾아가는 불교를 표방하는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지난 2~3월 인도 현지에서 펼쳐진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직접 참여해 포교의 중요성을 크게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교원은 올해를 포교 역량 전문화 원년의 해로 삼고, 청년불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 지역사찰, 청년불자단체 등과 연계해 대학생을 지원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도순례를 통해 전해진 포교의 중요성을 다시 절감했다고 운을 떼면서 “한국불교의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야말로 우리 불교는 침몰하는 배와 같다.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 법을 잘 전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강령이 육바라밀”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1167㎞의 여정을 함께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43일간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길 위에서 일생을 보낸 부처님의 삶을 온몸으로 절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바꿔 함께 나눠야 한다”며 “이제는 뜻 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재도약을 염원하는 순례길이 이어지면서 불교의 자긍심을 되찾으려는 사부대중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부회장 초격 스님(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은 앞서 펼쳐진 인도순례가 이 시대 또 다른 전도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포교와 전법만이 종단의 미래임을 명심하고 수행의 첫 걸음으로 인식해 대중 속에서 항상 함께하겠다”며 “선포식을 기점으로 전국의 교구본사와 말사들이 전법과 포교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 신도연구위원회 위원장 원명 스님은 주윤식 회장과 김영석 포교사단장, 이연화 전국여성불자회 수석부회장에게 전법기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주문했다. 또한 선포식에 함께한 사부대중은 ‘부처님 법 전합시다’ 라는 글귀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포교 신도 단체장들이 포교원력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기부처님 목욕하세요”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는 5월 11일 관불의식 입재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아기 부처상이 안치된 불단을 이운한 뒤 관불의식을 진행했다. 관불의식은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이날 의식에는 5월 9일 삭발수계식을 하고 단기 출가 중인 동자승들도 참여했다. 관불의식은 5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과 동자승이 관불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사

불자대상에 자비신행회 · 이원욱 · 이원종 · 홍성흔 선정

5월 27일 봉축법요식서 시상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진우)는 “5월 9일 수상자 선정 회의를 열고 (사)자비신행회와 이원욱 의원, 이원종 불자, 홍성흔 불자를 올해 불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자비신행회는 1999년 창립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기부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참여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로, 아동 · 청소년 · 어르신 · 소외계층 및 국제구호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 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원욱


이원종


홍성흔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신행활동을 돕고 신심을 고취시키는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 활동에 매진하는 한편 불교 관련 각종 규제법령의 제 ·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종단의 오랜 현안인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에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이원종 불자는 배우로서 ‘달마야 놀자’ 영화 촬영을 위해 6개월간 행자생활을 하고, 매일 108배 수행을 하는 것은 물론 2018년부터 불교중앙박물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매년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하여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홍성흔 불자는 대학 야구선수 시절부터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를 한 바 있으며,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해 3000배를 3번이나 하는 등 신행활동 하는 등 불자로서 모범이 되는 신행생활을 해 왔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에서 열리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시상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국보 ‘화엄사 각황전 석등’ 보존처리 시작

5월 10일 부분 해체 고불식 봉행
2025년까지 과학적 보존처리 진행

국내 최대 규모의 석등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이 보존처리에 들어간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국보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부분해체보수를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식을 5월 10일 봉행했다.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은 전체 높이 6.14m로 국내 석등 중 가장 큰 규모다. 석등은 그간 시행한 정기조사(2012, 2015, 2018년), 문화유산 특별 종합점검(2014년), 정밀안전진단(2015년) 등의 결과 석재 표면에 다수의 박리를 비롯해 화사석과 상대석 균열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19년부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으며,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 해체 · 보존처리가 결정된 바 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석등 해체 고불식의 공덕으로 해체보수 전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돼 천년의 광휘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제불보살님께서 가피력을 내려달라”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석등을 부분 해체해 5월 12일 대전에 위치한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이송했다. 연구원에서는 세척, 구조보강 접합, 신석 복원 등의 공정을 통해 석등의 보존 처리가 이뤄진다. 보존 처리는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령 명) 편집국 차장 윤 호 섭
2023년 5월 2일 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 www.LLF.or.kr
연등회
YEON DEUNG HOE
燃燈會
2023. 5.19.~21.
전통등전시회
5. 11.(목) ~ 5. 28.(일)
광화문광장, 조계사, 봉은사
연등행렬
5. 20.(토) 19:00 ~ 21:30
종로거리(흥인지문~종로~조계사)
대동한마당
5. 20.(토) 21:30 ~ 23:00
종각사거리
전통문화마당
5. 21.(일) 12:00 ~ 18:00
조계사 앞길
LOTUS LANTERN FESTIVAL

“보살 원력으로 중생 고통 해결을”

국회 정각회, 5월 10일 창립 40주년 기념법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78년 불자 의원 소모임이 시작
1983년 4월 ‘정각회’ 정식 창립해
진우스님, “K-명상 보급할 것”
의원들 ‘상호 배려 · 화합’ 다짐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전달


국회 정각회는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 전 기념촬영 모습.

불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정각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열고 화합의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종단협 수석부회장 덕수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법명(관음종 총무원장) · 호명(태고종 총무원장) ·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정각회는 1978년 4월 불자 국회의원들의 소모임으로 시작됐다. 정식 발족은 1983년 4월 27일에 이뤄졌으며, 권익현 의원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국회 정각회’라는 이름은 조계종 제18대 총무원장과 원로의원, 전계대화상을 역임한 성수 스님이 지었다.

창립 이래 국회 정각회는 불교를 외호하는 호법신장으로서, 불교계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역할을 했다. 특히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제 · 개정과 불교방송 개국, 군종장교 비율 조정, 경승제도 신설 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제14대 국회였던 1995년 4월 27일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본관에 불교법당인 ‘정각선원(正覺禪院)’이 개설됐다. 당호(堂號)는 봉선사 중흥조 운경 스님이 명명했다. 정각회는 2009년부터 매월 첫째 수요일 정기법회를 시작했으며, 코로나19 당시에는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법회를 봉행했다. 제11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정각회는 현재 국회의원 47명, 국회 직원 72명 총 119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법회에서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보살의 원력으로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정치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45년간 끊임없이 중생들과 호흡하시며 불법은 세상 속에서 구현돼야 가치가 있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셨다”면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보살의 원력으로 오로지 전법일심(傳法一心)으로 세상의 고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간절한 발심으로 과거 천년의 역사를 보듬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 불교중흥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종단 중점 사업인 선명상 개발 ·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불교는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상기시킨 진우 스님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락(苦樂)과 업(業)을 없애는 ‘업장소멸’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단에서는 선 명상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려 한다”면서 “현대인의 사고에 맞춰 개발한 K-명상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자살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주 회장은 “국회 정각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우리 국회에서 구현하고자 결성된 국회 불자 모임”이라며 “모든 존재들의 안녕을 위해 자비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처님을 본받아 국회 정각회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오기와 독선을 몰아내는 데 노력하고 있는 국회 정각회 회원들의 행보에 국민의힘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영배 정각회 수석간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화쟁과 자타불이의 정신으로 힘을 모으면 나라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국회 정각회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문체부도 든든한 파트너로 동행하겠다”고 했으며,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불교적 사고와 가치를 가진 국회 정각회의 의정활동이 최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중앙신도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정각회 회원들과 법회 참석대중은 상호 배려와 화합을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법회 참석 사부대중은 김두관 국회 정각회 간사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신심으로 수행하고 정진하는 불자가 되겠다”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모순을 원만하게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국회 정각회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또한 국회 정각회 발전에 공로가 큰 정병국 국회법우회 초대회장과 김경해 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진우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 주호영 회장, 이원욱 명예회장, 김영배 수석간사는 국회 정각선원에서 108배 정진을 진행했다.

종덕 · 현덕 법계 품서…“불퇴전 각오로 정진”

조계종 법계위 품서식 봉행
상반기 승가고시 시상식도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는 5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 · 현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하고, 비구 64명, 비구니 23명에게 각각 종덕과 현덕 법계를 품서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품서식에서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수행자가 법계를 품서하는 일은 그간의 수행이 원만했고, 앞으로의 수행을 감당할 만한 자질을 갖췄음을 증명받는 일”이라며 “불퇴전의 신심으로 스스로가 환희롭고 일체중생이 감동하고 찬탄하는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정진을 당부했다.


종덕 법계를 품수하는 비구스님들이 새 가사를 정대한 채 용맹정진을 다짐하고 있다.

이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종덕 · 현덕은) 높은 지위와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출가 당시 초심을 세워 참된 진리를 사회에 전하는 한국불교의 기둥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를 비롯해 법계위원 무관 · 정여 · 동광 · 현고 대종사는 단상에 올라 품수자들에게 서원시달을 하고, 대표 품수자인 법원 · 도진 스님에게 법계증을 수여했다. 이어 새 가사를 수한 품수자들은 불조의 혜명을 이어 정진할 것을 함께 발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수진)는 같은 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덕 · 현덕 법계를 품수하는 1급 수석합격자는 비구 법원 · 비구니 도진 스님, 3급 수석합격자는 비구 수인 · 비구니 혜돈 스님, 4급 수석합격자는 비구 조주 · 비구니 정연 스님이다. 윤호섭 기자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전달 잇달아

자광 대종사 1000만원 쾌척
밀양 표충사 3000만원 전달
통도사, 요양병원 기금 기부

조계종 주요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이 전국에서 답지하고 있다.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자광 대종사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워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 존숭토록 해야 한다”며 “총무원장 스님은 추진력과 원력이 강하니 마애부처님을 반드시 바로 세우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5월 11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진우 스님은 “원로의장 대종사께서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 대종사께서 성원해주셔서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과 민병덕 반야사 신도회장(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이 배석했다.

이에 앞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와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는 아미타요양병원 운영기금과 ‘천년을 세우다’ 기금을 전달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5월 10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미타요양병원 기금 3000만원과 ‘천년을 세우다’ 및 승려복지기금 3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세우는 ‘천년을 세우다’와 아미타요양병원 운영은 37대 집행부의 중점사업”이라면서 “두 사찰에서 보내주신 기금은 중점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덕 스님은 “종정 예하께서 아미타요양병원 개원 취지에 공감하셨고, 사부대중이 뜻을 받들어 기금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승려복지에 관심을 갖고 돕겠다”고 했으며, 진각 스님은 “37대 집행부 중점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종단 사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1층 | 전화 02-720-1786 | 팩스 02-720-1788 | www.seungso.co.kr

스님들이 드시는 그 맛 그대로,
정통 사찰식 만두
왕교자 출시!

스님들의 6번의 감리 끝에 탄생한 고품질 정통 사찰식 만두가 5월 출시되었습니다.
사찰식 왕교자는 전화주문 및 승소매장과 승소몰(www.seungso.co.kr)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6가지 채소가 듬뿍
청양고추로 깔끔하게 잡은 끝맛
스님의 레시피를 온전히 담아내다

CJ 제일제당 | 승소 (僧笑)

본연의 순한 맛을 담은
사찰식 왕교자 Korean temple mandu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최응천 청장, 취임1주년 간담회서
관람료 감면, 문화유산 향유 ‘기대’
10월 조선왕조실록전시관 개관
국가유산 전환, 12월 비전 선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5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재청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5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감면 정책 시행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9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청장은 지난 1년 성과 중 하나로 국립공원 내 사찰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을 꼽았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사찰 등의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해 관련 예산 421억 원이 책정 · 승인돼 비로소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이라는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

최 청장은 “불교계 소유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 보호 및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역점 과제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 △문화유산 분야 규제 혁신 △궁능문화유산 복원 정비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국외소재문화유산 전략적 환수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가칭) 개관 등을 발표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유산기본법을 비롯해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등 연계 법률 제 ·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체제에 맞는 정책 전환과 법령 일괄 정비, 유산 정보 변경 등이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이 담긴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을 오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강원도의 숙원사업이었던 오대산사고본 실록 · 의궤의 ‘환지본처’도 본격화된다. 최 청장은 “월정사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이 지난해 10월 국가로 기부채납됐고, 국가지정문화재 소장 · 관리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 중”이라며 “오는 10월 중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으로 부분 개관하며, 2단계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10월 전면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은 국립고궁박물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되며, 상설 및 특별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물 보존처리, 관련 연구 등이 진행된다.

최 청장은 “오대산사고본 등 조선왕조 최고 기록유산인 실록 · 의궤를 현지 보존하고 조사연구 · 전시 · 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최 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국외소재 문화유산은 27개국 22만9655점, 환수된 것은 12개국 1만1034점에 이른다.

최 청장은 “소재국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유럽 국가와의 교류 강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한 조사 연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소재국과 역사 ·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K-공유유산’을 적극 발굴해 활용 방안을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이날 사찰을 다수 포함한 ‘문화유산 방문 코스’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천년 정신의 길(불국사, 석굴암, 봉정사 등), 백제 고도의 길(마곡사, 미륵사지 등), 왕가의 길(전등사), 관동 풍류의 길(낙산사, 신흥사, 월정사)에서 사찰을 방문할 수 있다. 특히 고유한 역사를 지닌 사찰들을 방문하는 ‘산사의 길’은 마곡사, 법주사, 대흥사, 선암사, 송광사,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해인사로 구성됐다.



조계종 사노위 “日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5월 8일 조계사~일본대사관 오체투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엄밀하게 듣고 무수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오염수 방류 정책을 지금 당장 멈춰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의 생명이 걸린 오염수 방류 중단에 대해 기시다 총리로부터 확답을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체투지했다.〈사진〉

사노위는 5월 8일 서울 조계사부터 종각, 광화문, 일본대사관 앞까지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오체투지’를 개최했다.

불교환경연대 소속 스님들도 동참한 이번 오체투지는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방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7월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여러 방사성 물질 등이 섞여 방류될 것을 우려하는 일본 자국과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에 희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체투지에서 사노위 부위원장 고금 스님은 현재 방한 중인 일본총리에게 자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오염수 방류 중단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도 “그동안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던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진정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한 지금 오염수 방류 중단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적극 중단시키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일본의 눈치만 보며 방치한다면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드는 정부가 됨을 엄중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사노위는 오체투지 이후에도 오염수 방류 저지와 탈원전 등 생명과 환경을 위한 실천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경찰청 봉축법회…“문수 지혜 배워 치안 만전”

5월 9일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봉행

포교원장 범해 스님 법어
“주인 되도록 정진” 당부



서울경찰청 경승실과 불교회는 5월 9일 청사 대강당과 로비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봉축대법회를 봉행하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경찰청 경승실과 불교회는 5월 9일 청사 대강당과 로비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00여 명의 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원명 스님과 포교부장 선업 스님, 천태종 개문 · 성민 · 진철 스님, 봉은사와 관문사 신도 등이 함께했다.

이날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준비된 법어 원고가 아닌 즉석 법문으로 불제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은 우리의 생일이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어야 한다”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신 · 구 · 의 삼업을 관리해 내가 주인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경승실장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축사에서 “법 질서 내에서 경찰 여러분이 치안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행복하고 화합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삼법인의 제행무상 · 제법무아가 경찰의 혁신, 현장을 향하라는 가르침으로 생각한다”며 “문수보살의 지혜와 리더십을 배워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에선 김봉식 서울경찰청 불교회장이 총무원장 표창을, 신동일 부회장이 포교원장 표창을, 김향란 · 이선주 회원이 경승실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관문사 부주지 개문 스님, 백락사 주지 성민 스님, 흥원사 주지 성오 스님, 봉은사 포교국장 공일 스님, 세광사 감원 종률 스님이 감사장을 받았다.

법회가 끝난 뒤 사부대중은 로비 1층으로 이동해 포돌이 · 포순이 장엄등을 밝히며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렸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템플스테이 치유효과 연구 임상 참가자 모집

문화사업단, 동국대일산병원 공동
20~69세 100명…7월까지 접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의 치유효과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동국대일산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과민성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 전후의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변화와 환자의 증상 변화를 임상시험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연구다.

임상시험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 전후와 4주 후 분변 채취키트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증상 변화와 임상시험 만족도 등을 조사해 검증할 예정이다.

임상시험 참가 자격은 △20세 이상 69세 이하 과민성장증후군 환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복통과 배변 습관 변화 △사전검사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모집인원은 최대 100명이며, 신청 기간은 7월 말까지다. (031)961-8441 신성민 기자



“잘 먹어야 할 것 중 으뜸은 마음”

암도 대종사, 정릉 삼원사 생전예수재서 법문

5월 7일 ‘잘 사는 법’ 주제로
목련 존자 효심과 천도재 설명
“대장경 한 글자로 줄이면 心”
양심 저버리지 않고 살 것 당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 대종사.


삼원사 법당에서 여러 사부대중이 자리한 채 봉행된 생전예수재.

“이번 생을 잘 살면 다음 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를 몰라요. 잘 살려면 우선 잘 먹어야 하는데, 그 중 으뜸은 바로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겁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여산 암도 대종사가 지난 7일 정릉 삼원사에서 봉행된 생전예수재에 법사로 나서 대중에게 ‘잘 사는 법’을 주제로 이 같이 법문했다. 삼원사는 암도 대종사가 1986년 창건한 천일기도 관음도량으로, 현재 상좌인 선각 스님이 4대 주지를 맡고 있다.

암도 대종사는 이날 생전예수재와 같은 성격의 천도재들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 목련 존자의 효심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며 법문을 시작했다. 스님은 인도 왕사성을 대표하는 거상의 장남으로 태어난 목련 존자가 잘못된 품행으로 일평생을 산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노력한 일을 설명했다.

스님은 “목련 존자 아버지의 별세 이후 어머니는 물려받은 재산을 약속대로 공양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수행자를 능멸하거나 음주가무와 향락을 일삼으며 살았다”면서 “그 과보로 어머니는 죽어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뛰어난 신통력을 갖춘 목련 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도움을 구해 많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다”며 “지금의 백중이 여기에서 유래했고, 다른 천도재들도 사실상 뿌리가 목련 존자의 효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암도 대종사는 전생과 금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윤회 속에서 삶에 대한 걱정을 없애기 위한 개인의 마음가짐과 자세도 설명했다.

스님은 ‘잘 먹는 일’을 강조하면서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적당히 먹을 것, 좋은 공기를 천천히 마시도록 노력할 것, 나이가 들수록 넓은 마음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마음을 잘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암도 대종사는 “기나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압축하면 ‘마음 심(心)’으로 표현할 수 있다”며 “그 마음속 영(靈)이 커져야 한다. 그러려면 정직해야 하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염불이나 명상 등의 수행을 어려워하는 불자들을 위해 故윤극영 작곡가가 1924년 지은 동요 ‘반달’을 불러보라고 제안했다. 첫 소절 때문에 노래 제목이 ‘푸른 하늘 은하수’로 잘못 알려지기도 한 이 동요에서 암도 대종사는 ‘돛대’나 ‘삿대’도 없이 서쪽 나라로 간다는 구절에 주목했다. ‘반달’을 불교적인 의미로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님은 동요를 대중교화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다.

스님은 “돛대와 삿대 없이도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결국엔 서쪽 나라,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간다고 이해하라. 이마저도 안 될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라”며 “생전예수재 공덕을 쌓은 불자들과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117주년 동국대, ‘Meta Plan 120’ 발표

중강당서 기념식…“건학이념 계승해 미래를”



개교 117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미래 발전 계획인 ‘동국 Meta Plan 120’을 발표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5월 4일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동국대는 ‘동국 Meta Plan 120’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동국 Meta Plan 120’는 윤재웅 총장 임기 마지막 해이자 동국대 개교 120주년인 2026년까지 추진할 핵심과제 25개와 세부과제 50개 실행을 통해 ‘혁신적 상상력으로 인류에 기여하는 동국’을 목표로,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ICT 기반의 새로운 대학 경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추진할 5가지 영역별 전략 및 핵심과제로 △건학이념 - 세계적 불교 중심대학 기반 확립 △교육 - 소프트파워 화쟁형 인재양성 △연구 · 산학협력 - 창의융합 연구 및 산학협력 체계 고도화 △경영 · 인프라 - 미래사회 수요 대응 경영혁신 △대외협력 - 기부금 모금 기반 고도화 및 1000억 모금 등을 추진한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학이념을 계승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4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동국 Meta Plan 120을 발표한다. 동국 Meta Plan 120은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25개 핵심과제와 50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며 “향후 4년간 우리 대학은 동국 Meta Plan 120을 바탕으로 국내 TOP 3, 글로벌 50위 대학을 향한 비전 2040의 힘찬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지난 117년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학문의 전당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동국대학교를 위해 헌신해주신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내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하게 일해주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이사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9명에게 공로상을, 48명에게는 장기근속상(30년, 20년, 10년)을 수여하는 등 그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한 해 동안 기부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내 구성원에게 주는 개교 117주년 기념 기금조성 공로상은 전자전기공학부 박정동 교수 등 3명이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은 경찰행정학부 조윤오 교수 등 2명이 수상했다.

신성민 기자

보존처리 ‘보물 자수가사’ 보러 오세요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3~25일
하루 3번 총 9차례 현장 공개
1979년 보물 지정 이후 최초
5월 10일부터 선착순 사전접수


액자에 들어있는 보물 자수가사. 현재 보존처리 중이다.

현재 보존처리 중인 보물 ‘자수가사’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소영)와 서울시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 9회(1일 3회)에 걸쳐 대전 유성구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물 자수가사’ 보존처리 현장을 공개한다.

보존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보물 자수가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보물(三寶, 불 · 법 · 승)’ 125개의 도상을 수로 놓은 작품이다. 실제 착용 목적이 아닌 예불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79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보물 자수가사(刺繡袈裟)’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9년부터 「자수가사」의 옛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하고 있다.

‘보물 자수가사 프로젝트: 보존과학자의 1492일’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해 12월까지 복원 완료가 예정된 보물 자수가사의 보존처리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공개행사에서는 보존처리를 위한 과학적 조사와 젤 세척, 인공 열화 실험 등 직물 보존처리 최신 정보와 함께 명주짜기, 천연 염색과 같은 전통 공예기술을 비롯해 ‘자수가사’의 보존처리 여정에 깃든 보존과학자의 노력과 고민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 보존처리로 인해 자수 뒷면 배접지가 제거된 상태라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수 뒷면도 볼 수 있다.

행사는 유물의 안전한 공개를 위해 사전 신청한 선착순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자수가사 소장처인 서울공예박물관 누리집 내 ‘프로그램 예약하기’에서 5월 10일 정오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 서울공예박물관과 함께 국민 모두가 보물 자수가사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해 국가문화유산에 담긴 새로운 가치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13회 원효학술상에 박태원 명예교수

학생부문 송영미 · 이태영 · 이도연 씨 선정

제13회 원효학술상 학자부문 대상에 박태원 울산대 명예교수가 쓴 〈원효의 통섭철학〉이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원효학술상 운영위원회는 “5월 2일 종합심사회의를 열어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학자부문 대상은 박태원 울산대 명예교수의 저서 〈원효의 통섭철학〉(세창출판사, 2021)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석 · 박사 과정 학생 부문에선 아주대 대학원 박사과정 송영미 씨의 논문 ‘마음챙김과 자비심 기반 직무소진 예방 명상 프로그램(MCBP) 개발 및 효과’와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이태영 씨의 ‘불교에서 소리의 공능(功能)에 관한 연구’가 은상을 수상했다. 동상에는 고려대 대학원 석사과정 이도연 씨의 ‘진제의 삼성설 연구: 현장의 삼성설 해석과 대비하여’가 선정됐다.


제13회 원효학술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원효의 통섭철학’과 저자 박태원 울산대 명예교수.

원효학술상 운영위원회는 “응모된 총 35편을 대상으로 3월과 4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학자부문 대상은 3000만원, 학생부문 은상은 각 600만원, 동상은 4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윤호섭 기자



삼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장례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내주신 관심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의이나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너그럽게 혜량해주시길 바랍니다.
댁내에 건강과 평안,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故김주일 국장 49재 –
6월 21일(수) 오전 11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초재부터 6재까지는 유가족 및 스님들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장례위원회

조계종 지원으로 튀르키예 '한국마을' 조성

튀르키예 이재민 지원 현장

아름다운동행, 컨테이너 100개
일화 스님, 5월 4일 현장 살펴
"튀르키예 6.25 참전 형제 국가"
이재민 돕기 캠페인 참여 당부

튀르키예=임은호 기자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5월 4일 동행이 지원하는 컨테이너가 설치될 '한국마을'을 방문, 조성 상황을 살펴봤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하타이주 거리 모습.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한인마을' 점검 후 인근 임시거주지인 텐트촌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올해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진도 7.8이라는 유례없는 강진이 발생했다. 6만여 사상자와 10만여 부상자, 400만 채 건물 피해, 45조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 이번 강진은 21세기 들어 역대 6번째로 인명피해가 큰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한순간에 가족과 집을 잃고 실의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전세계에서 구호 손길이 이어졌다. 조계종이 설립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도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 지원에 나섰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하이타주 이스켄데룬스시(Hatay Iskenderun)에 조성된 임시 거주처 '한국마을'(Korean Village) 설립에 자비나눔을 실천한 것.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5월 4일 컨테이너 설치가 한창인 '한국마을'을 찾아 조성 상황을 살펴봤다.

이번 '한국마을' 조성은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남동부 등 현지 4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튀르키예한인총연합회의 주도로 성사됐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직후 발 빠르게 전국 18개 구역을 이재민 지역으로 선정했고, 그중 한 곳에 대한 지원을 튀르키예한인회에 요청했다. 한인회 주도로 조성되는 만큼 해당 지역은 '한국마을'로 명명됐다.

같은 시기, 아름다운동행에서도 이재민들을 위한 컨테이너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국마을'이 조성된다는 소식에 아름다운동행은 한인회와 협력키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3월 27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아름다운동행이 컨테이너 주택 100개(6억 상당)를 후원하고, 한인회는 설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컨테이너 200개 규모로 계획됐던 '한국마을'은 아름다운동행의 후원소식에 360개 규모로 확장될 수 있었다. 4인 가족, 1500여 명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주지가 마련된 순간이다.

튀르키예한인회는 4월 10일, 이스켄데룬시에서 이스마일 차타클르 현지 내무부 차관, 이원익 튀르키예 한국 대사, 파티흐 토스얄르 이스켄데룬시장, 이스켄데룬 거주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마을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 '한국마을'이 조성된 이스켄데룬시는 첫번째 지진 진원지인 가지안테프 지역에서 150여km 떨어졌다. 지진피해가 전혀 없었던 지역은 아니지만, 근방에서는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위치다.

'한국마을'은 2만7700㎡(약 8380여 평) 부지에 360개 컨테이너로 조성됐으며 내부에는 샤워부스, 세면대, 싱크대가 설치됐다.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튀르키예의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추가로 순간온수기, 에어컨 등도 설치한다. 마을 안에는 행정실과 보건실, 세탁실, 종교실을 비롯해 놀이터, 문화 프로그램 공유 및 어린이 교육 등을 위한 문화센터 등도 차차 마련해 이재민들이 장기간 거주해야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투입비용은 200만 달러, 한화 약 26억 원이다. 현재 배수와 전기 등 재반 공사가 마무리됐고, 컨테이너도 대부분 설치됐다. 에어컨과 인덕션 설치 등 내부공사가 마무리 되면 5월 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한국마을' 현장에서 상황을 꼼꼼히 살핀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대규모 재난 재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 의료, 식량, 주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시급한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염병 등에 대비하고자 재건복구 이전까지 임시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컨테이너 주택을 지원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달려온 형제국"이라고 강조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불교도 튀르키예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화 스님은 이날 '한국마을' 점검 후 임시거주지인 텐트촌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한국마을'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임시거주지에는 현재 600여 텐트에서 2500여 명의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텐트촌에서 만난 이재민 유젤(65)씨는 "무엇보다 힘든 것은 지진에 트라우마로, 지금도 공포에 휩싸이면 집 붕괴 당시 짓눌렸던 폐가 아파온다"고 호소하고 "컨테이너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불교계에서 컨테이너를 지원했다고 들었다"면서 "종교를 불문하고 편견없이 지원해 준 한국불교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마을' 조성 이끈 사람들

"재건 복구까지 성심성의껏 임할 것"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 후 텐트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택 컨테이너 100개를 지원하고 돌아온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텐트촌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컨테이너 임시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일화 스님은 이번 지원에서 눈에 띄는 성과로 재튀르키예 코트라, 튀르키예한인회, 에르지예스대학교 등 현지 단체들과의 협업을 꼽으며 "국내외 협력사업의 결과물로도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에서 컨테이너 지원을 준비하던 아름다운동행은 '한국마을' 조성 소식을 접하고 현지 단체들과 협력,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이재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스님은 "국내에서 준비해 지원하고자 했다면 금전, 인력적 문제로 많은 이재민을 도울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지 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신속하게 소통,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일화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재건 복구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면서 "향후 마무리까지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준 불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일화 스님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종교를 불문하고 자비심으로 모연에 동참해준 불자들 덕분에 조계종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세계시민을 위한 일들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지원, 불교 알리는 기회되길"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



"종단의 이재민 지원을 계기로 한국과 튀르키예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을 느낄 수 있었죠."

조계종단을 대표해 튀르키예 이재민 지원 현장에 온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형제의 나라'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스님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밝게 웃으며 합장인사를 건네는 이들의 모습에 감동한 것.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크게 다친 이재민들이 '한국마을' 임시주택에서라도 안정을 찾길 염원했다.

범종 스님은 특히 '한국마을'에 조성될 문화센터에도 깊은 관심을 표했다. 스님은 "문화센터에서 진행될 각종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 특히 불교를 튀르키예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종단이 관심을 갖고 한인회 등과 협업, 프로그램 지원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교, 인종, 문화는 다르지만 인류에 대한 자비심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범종 스님은 "튀르키예가 하루빨리 재건될 수 있도록 조계종단도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 편견 없는 불자들에 감사"

김영훈 튀르키예한인총연합회장



"무슬림이 대부분인 튀르키예에 아무런 종교적 편견없이 대량의 컨테이너를 지원해준 한국불교계와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김영훈 튀르키예한인총연합회장은 '한국마을' 조성의 일등공신이다. 재튀르키예 한인으로서 지진발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는 김영훈 회장은 "한국인들의 정성을 한 곳에 집중, 효과적으로 이재민을 지원하고자 한국 마을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가가 이름을 사용해 마을을 만드는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기에 더욱 뜻깊다.

"지진피해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복귀될 때까지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 회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현지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뤄진 만큼 효과적으로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內 한국문화 전파 노력"

박용덕 튀르키예한국문화교류협회장



"'한국마을' 내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K-컬처 기대하세요."

5월 말 입주를 시작할 '한국마을'에는 다양한 한국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문화센터도 건립된다. 문화센터 운영은 튀르키예한국문화교류협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문화센터에서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포함해 이재민들의 정신적 문제에 도움을 줄 상담소와 아이들을 위한 방가 후 교실, 직업 훈련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문화센터는 5월 말, 이재민들이 입주하면 자연스럽게 운영에 들어간다.

박 회장은 "한국 음악과 음식, 언어, 한국불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중에 있다"면서 "세계적인 K-pop 인기로 인해 튀르키예 사람들도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임은호 기자

아름다운동행의 '아름다운 후원'

일상회복, 나눔으로 더 가까워졌다

5월 8일,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인덕션 370개…1500만 원 상당
30만 리라…쌀 등 생필품 전달
200명 임시 기숙사 찾아 위로도
"불자 십시일반 결과" 지원 약속



조계종은 주이스탄불 총영사관에 컨테이너에 설치될 인덕션 370개(1500만 원 상당)도 전달하며 이재민들의 일상회복과 건강한 삶을 염원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처 중 한 곳인 뷴얀시를 찾아 지원금 30만 터키리라(한화 약 2000만 원)을 전달하고 위로를 말을 하기도 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이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에게 임시주택 100개를 지원한데 이어 지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재민들의 일상회복과 건강한 삶을 염원했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5월 8일 이스탄불에 위치한 주이스탄불 총영사관을 방문, 이우성 총영사에게 전기 조리 기구인 인덕션 370개(한화 15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인덕션은 이스켄테룬시에 조성된 '한국마을' 임시주택 360개에 개별 설치될 예정이다. 여유분은 문화센터 등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의 지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한국마을'의 규모가 커지자 안전과 위생 등을 고려해 공동식당보다는 컨테이너 별 개별취식으로 조성이 변경됐고, 소식을 접한 조계종은 컨테이너에 이어 인덕션까지 통큰 지원을 하게 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이재민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별 지원키로 했다"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인회와 기민하게 소통,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우성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총영사는 "튀르키예 재건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의 컨테이너 지원으로 이재민들의 거주처인 '한국마을'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지원은 한인사회가 튀르키예 내에서 국민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달식 후에는 재이스탄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 튀르키예한국기업협의회장인 이동원 관장과 면담했다. 이동원 관장은 "이번 재난 협조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들이 튀르키예에서 활동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며 조계종의 각종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범종 스님도 "불자들의 자비손길을 계기로 앞으로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이 더욱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일행은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처 중 한 곳인 뷴얀시를 찾아 이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염원하고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5월 5일 튀르키예 뷴얀(Bünyan)시청에서 오즈칸알튼 뷴얀시장을 만나 이재민 지원금 30만 터키리라(한화 약 2000만 원)을 전달하고 위로를 말을 전했다. 이날 아름다운동행이 전달한 지원금은 쌀과 밀가루, 렌틸콩, 차이 등 이재민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오즈칸알튼 시장과의 만남 후 일화 스님과 일행은 카이세르대학 기숙사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만났다.

2살 아들과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라비앙(28)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진 당시 건물에 깔리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뷴얀시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현재 거의 나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일 후 가족이 함께 옮겨갈 컨테이너가 한국 불교계에서 지원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감사하다"면서 "고통스럽기만 했던 순간을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으니 천천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부산·경남,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불 밝히다

지역 연합회 및 사찰 점등식 봉행
천태종 삼광사, 10만 연등 불 밝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도
경찰서 연등 밝히며 시민 안전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경남 지역 사찰과 지역 연합회가 점등식을 봉행하고 장엄등에 불을 밝혔다. 이번 점등식에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국운융창 등 나라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가 5월 7일 경내 지관전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는 도량에 10만여 연등과 장엄등을 밝히고 평화와 자비가 가득한 세상을 기원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국운융창 및 부산 발전을 염원했다.

점등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 기원 △봉행사 △점등사 △점등법어 △치사 △축사 △축가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도용 스님은 법문을 통해 "한 생각 청정하면 온 세계가 밝아지니,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면 인류의 마음에도 평화가 성취되리라"며 "자등명 법등명이라.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사바세계의 무명을 밝히고 정법의 등을 높이 들어 국태민안과 국운융창을 발원하며 불국정토를 거룩하게 장엄하라"고 법문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점등사에서 "오늘 삼광사에서 밝히는 등불은 부처님의 향기를 담아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까지 밝게 비추어,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의지를 상실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서광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밝히는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되어 국민화합과 통합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점등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들과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서병수, 이헌승 국회의원,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등 내빈들이 동참했다.

부산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가 5월 6일 장안사에서 불기 2567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회장 정오 스님,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 고불사 해월 스님 등 기장군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정종복 기장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점등식은 개막을 알리는 28타종식으로 시작해 예불 후 본행사가 이어졌다. 본행사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환영사, 봉행사, 축사, 헌화공양 순으로 진행됐으며, 점등 후 탑돌이는 우천으로 인해 설법전을 돌며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진행됐다.


부산·경남 대표 사찰 및 불교연합회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삼광사 점등 모습.

회장 정오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행사를 축소해 진행하다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된 것 같다. 기장군불교연합회 점등식은 그동안 노력해준 연합회 소속 스님들의 관심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다"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는 5월 9일 경내 일원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국민화합과 국운융창을 위해 열린 이번 점등식은 봉축 점등 및 봉행사, 점등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봉축가, 발원 문 및 석가모니 정근으로 마무리됐다.

춘광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오늘 지극한 마음으로 밝히는 봉축의 등불은 지혜의 등불이며 자비의 빛"이라며 "우리의 마음에 불을 밝혀 거짓과 위선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원력이기도 하다. 우리가 모두 함께 밝히는 이 찬란한 등불은 번뇌와 욕망과 어리석음에서 오는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와 자비, 행복의 세상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5월 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는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로비 일층에 연등을 밝혀 경찰들과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이 땅에 나투신 부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점등식에는 남구불교연합회 회장 지원 스님, 원순 스님, 대각 스님, 능후 스님을 비롯해 박광주 부산남부경찰서 및 경찰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점등식은 인사말씀 및 점등,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원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찰 서장님을 비롯해 형사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여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부산사상구경승위원회(실장 성문)는 5월 2일 사상경찰서 내 1층 로비에서 범죄 없는 안전한 사상구가 되기를 발원하는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경승실장 성문 스님(선광사 주지), 총무국장 법경 스님(관음사 주지), 경승위원 자륜 스님(낙은사 주지), 향공 스님(견강암 주지), 은적 스님(관음사 주지)과 남기병 사상경찰서장 외 사상경찰서 직원 30여 명이 함께했다.

점등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봉행사 △축원 △경찰서장 인사말 △경승실장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경승실장 성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예전에 사상구는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서장님께서 오신 후 사상경찰서가 범죄 없는 도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말로 축하한다"며 "이 모든 게 덕장이신 서장님과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덕분이다. 앞으로도 사상구민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운)는 5월 9일 고성 송학동 고분군에서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고성불교사암연합 회장 수운 스님, 지성 스님, 법진 스님, 이암 스님, 마가 스님, 월암 스님, 현제 스님, 진각 스님, 원명 스님, 통영불교사암연합 회장 종묵 스님, 도법 스님, 자용 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이상근 고성군수,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 사찰 임원진 및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내빈소개, 대회사, 점등, 봉축사, 축사, 발원문, 축가, 석가모니불 정근 순으로 진행했다.

회장 수운 스님은 "해마다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탑등에 불을 밝히고 삼라만상 모든 사람들이 온 우주의 주인공임을 알기를 바란다"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정불심'으로 전한 장학금

부산여성불자회, 장학금 전달식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정분남)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5월 10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2023년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하고 중학생 각 30만 원(11명), 고등학생 및 대학생 각 50만 원(7명) 등 총 18명에게 장학금 총 68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대종사, 정찬 스님(도림사)을 비롯해 정분남 회장,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고문, 백명숙 부산파라미타 협회장, 현익채 금정중학교 교장, 천용귀 前 부산파라미타 사무처장, 정경연 부산파라미타 처장, 부산여성불자회 임직원 및 회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전달식은 개회, 삼귀의 및 반야심경 봉독, 격려사, 인사말, 축사, 장학금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혜총 대종사는 "오늘 장학금은 부산여성불자회에서 진행하는 거룩한 불사"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학업에 집중하고 충실하기를 바라는 부산여성불자회원들의 마음은 불보살의 마음이고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격려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5월 10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2023년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정찬 스님은 "청소년은 미래 불교의 주역이며 동량"이라며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고 불자로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분남 회장은 "장학금 전달은 오늘 함께해준 여성불자회 회원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으로 이룬 결과이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용기를 얻고 희망하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여성불자회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자비로써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마음을 자양분 삼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은 삼보순례 기도수행을 이끌고 있으며, 기도 수행 보시금을 모아 인재불사에 앞장서 왔다. 정분남 회장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로 동국대에서 공부할 당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학생을 만나 원력을 세우고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정분남 회장은 2013년 동국대 WISE캠퍼스에 삼보장학회를 설립하고 10년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7월에 부산여성불자회 장학금으로 취임해 인재불사를 이어갔으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보살이 될 것을 서원해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 기념품으로 텀블러를 재활용 보자기로 포장 전달해 환경보호를 위한 모범적인 실천 행동으로 눈길을 모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밀양불교사암聯, 위문품 전달

5월 8일, 떡과 라면 등 간식 전달

밀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진각)는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밀양경찰서와 밀양소방서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 전달식에는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각 스님, 용궁사 정무 스님, 대원암 현송 스님, 무봉사 천주 스님, 약수암 환명 스님을 비롯한 김병주 밀양경찰서장, 최경범 밀양소방서장 등 소방관계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는 밀양소방서와 밀양경찰서에 각각 떡 200인분, 라면 300개를 전달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각 스님은 "봄철이면 많은 산불이 발생해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 또 지역 치안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책임을 다해주는 경찰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경찰들과 소방관이 곧 호법신장이며 이분들로 인해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옥천암, 어르신 나들이 孝 실천

부산 옥천암(주지 대각)이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위한 관광여행을 진행하고 효 사상을 실천했다.

옥천암은 5월 10일 지역 어르신을 위한 봄나들이를 진행했다. 여행지는 경남 합천 합천댐이며 주지 대각 스님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120여 명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동참했다.

옥천암은 여행에 필요한 일체 경비와 도시락 및 간식 등을 제공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주지 대각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부모를 공양하고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해 효도 관광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속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를 실천해 공덕을 쌓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보람이 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일불교교류協 여성부, 무차 만발공양

5월 7일 음식 2000인 분 전달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5월 7일 송상현 광장 일대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무차 만발공양을 진행했다.

백명숙 회장은 이번 만발공양을 위해 새벽부터 음식 2000인 분을 마련했으며,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사무총장 향운 스님을 비롯해 회원 50여 명이 동참했다.

우중에도 오전부터 오고가던 시민들은 가족들과 비빔밥을 먹으며 감사함을 전했다. 비빔밥을 먹은 한 시민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음식을 맛보고 싶었고 지난해 여기서 먹었던 공양 생각나서 찾아오게 되었다"며 "이번 해에도 비빔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사무총장 향운 스님은 "16년 동안 한결 같이 무차만발공양을 통해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뜻을 전달하고 있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이라며 "하늘에 달은 하나이지만 천 개의 강물에 천 개의 달이 뜬다는 말이 있다. 부처님의 광명을 두루 널리 알리고 무명이 사라져 모두가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백명숙 회장은 "비가 오는 중에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무차만발공양을 하며 절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이 위로를 얻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전해주고 간다. 보람되고 평등과 자비를 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개금사회복지관, 고독사 예방 어플 개발

KT부산경남광역본부 사랑의봉사단 동참

사회복지법인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플 '개금안테나'를 개발하고 보급에 앞장섰다.

어플 '개금안테나'는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이다. 어플 '개금안테나'는 시니어 건강신호등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복지관 담당자가 관리해 고독사 방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의 전기, 가스, 생활안전 자가점검을 통한 위험예방 활동과 복지관 담당자와의 다이렉트 영상통화, SNS(카카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방향소통을 한다. 이번 어플개발 및 교육은 KT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랑의 봉사단이 제공했다.



류강렬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의미 있는 나눔을 진행해준 KT부산경남광역본부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복지관 앱과 스마트기기 활용 무상 교육으로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최근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봉균 KT부산경남광역본부 전무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정보취약계층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부산 15분 복지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제123회 선찰대본산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은 1901년 성월 스님이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수계산림을 시작해 올 해로 123회를 맞아 오랜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살계는 천수다라니, 노사나불 정근, 주지 스님 인사말, 전계사 스님 법문, 십중대계, 보살계 48경계 등이 이어졌으며 수계식 및 계첩 수여로 마무리됐으며, 삼화상은 전계대화상 서림 대성 스님, 갈마아사리 일여 영환 스님, 교수아사리 도홍 화랑 스님이 맡았으며, 존증아사리는 정사 도근, 금옹 계전, 금당 범산, 여산 원타, 야허 정산, 보월 보운 스님이 담당해 법석을 증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韓 · 日관계 개선, 한국불자들이 앞장서다

일본 교토 이총 추모봉행위 4월 30일 진혼재 봉행

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붓다봉사단 등 100여 불자 모여 불교위령재 열어
일본 스님 · 지식인들 대거 참여해
"진정한 관계 개선, 참회서 시작"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대한민국나라사랑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일 교토 귀무덤에서 '임진왜란 희생 애혼 영령 추모 진혼재'를 봉행했다.

'일본 교토이총 추모진혼재 봉행위'는 4월 30

"낯선 땅에 묻혀 수십만 귀를 열어 두어도 끝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한 서린 애혼 영가이시여! 여기 한국의 후손들이 진혼재를 올리오니 애절한 한을 잠시 내려 놓으소서!"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대한민국나라사랑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일본 교토이총 추모진혼재 봉행위'(총재 목탁)는 4월 30일 교토 귀무덤에서 '임진왜란 희생 애혼 영령 추모 진혼재'를 봉행했다.

귀무덤은 400여 년 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일으킨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전리품으로 12만 6000여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 이를 묻어놓은 곳을 말한다. 한국 단체가 2007년부터 위령제를 열고 있으며,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이 중심이 된 '일본 이총 추모진혼재 봉행위'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혼재를 봉행했다.

이날 진혼재에는 봉행위원회 총재 목탁 스님, 회장 혜정 스님, 봉행위원장 청명 스님 등 한국 스님들과 일본불교협회장을 역임한 불광사파 서덕사 최고고문 오타니 기하쿠 스님, 주지 샤쿠 하쿠신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자 및 재일교포들과 아마키 나오토 교토평화모임 대표(前 레바논 대사), 나까노 요우이치 교토시의원, 민단신문 · 중외일보 등 일본언론기관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진혼재는 범패 등 불교전통의식과 함께 천도의식으로 이어졌다. 오타니 기하쿠 스님 등 일본 스님들이 참회와 축원을 올렸으며, 아마키 나오토 대표의 참회발언 등이 이어졌다.

〈귀무덤〉 책을 펴낸 아마키 나오토 대표는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총에 관한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한일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 과거사를 반성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야 한다. 이총 추모 진혼재는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은 육법공양을 올리고 애도송을 합송했으며, 한국에서 준비해간 추모의 글을 낭독하여 대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총재 목탁 스님은 "세계가 화합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때"라며 "국제불교지도자 스님들이 앞장서고 한국불교계의 각 종단 스님들과 불자들이 힘을 모아 자리이타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관심을 당부했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은 자비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매년 4회씩 10년간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회당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한 물품은 총 2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 교도소 재소자 교화 지원에도 나서 7회에 걸쳐 6천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한광수 신도회장 취임



조계종17교구 금산사 제5대 신도회장의 취임법회가 봉행됐다. 금산사 신도회는 5월 7일 전북불교회관 큰법당에서 금산사 신도회 제5대 한광수 회장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전북불교회관 주지 우림 스님,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을 비롯한 신행단체장들과 불자들이 참석해 한광수 신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한광수 신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도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된 것은 전북불교의 사부대중이 화합하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라는 책임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 · 탑사붓다봉사단 문화공연

백용성부대 방문해 장병 위문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이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안무주지역의 방위에 힘쓰고 있는 7733부대(대대장 원상석)를 방문해 장병위문 문화공연을 펼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열린 백용성부대 장병위문 문화공연은 지역방위활동과 방역활동등 무료한 군생활로 인한 장병들을 격려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안무주지역의 방위에 힘쓰고 있는 7733부대를 방문해 장병 위문 문화공연을 펼쳤다.

진안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진장재가복지센터(대표 최주연)는 장병들을 위해 냉커피와 냉음료를 제공했고 태고떡볶이봉사단은 장병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피자, 치킨 등 푸짐한 간식을 제공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원상석 부대장님과 붓다봉사단 이재현 단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여러 장병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수호하고 있어 고향의 부모님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위로했다.

스님은 이어 "일부러 서울에서 찾아주신 공연팀의 공연과 봉사단에서 준비한 간식을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기 바라며 잠시나마 군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상석 부대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대안전과 지역방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진성 스님과 붓다봉사단, 아메리칸 드림 홀딩스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올 봉축표어인 '마음엔 평화, 부처님 세상'이라는 주제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 바라며 부대장병들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석 부대장은 문화공연 준비와 장병들의 간식을 마련해준 아메리칸 드림 홀딩스 서동하 대표와 마이산탑사 붓다봉사단 이재현 단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진 문화공연은 전문MC 김현경의 사회로 걸그룹 메모리즈, 프롬의 공연, 트로트 그룹 누나 둘의 공연으로 행사에 참석한 장병들을 열광케 했다. 이어 박보성 씨의 색소폰 공연이 이어졌으며 천지사 현진 스님이 특별공연을 펼쳤다.

또 각 중대를 대표한 장병들이 다양한 끼를 발휘하는 장기자랑이 펼쳐졌고 입상한 장병들에게는 진안사랑 상품권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함안사암聯 '군민위안 봉축법회'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함안군민들을 위한 봉축법회가 봉행됐다. 함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명, 달전사 주지)는 5월 6일 함안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군민위안 봉축연합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박문자 바웃다합창단장의 사회와 수암 스님 집전으로 봉행된 이날 봉축연합법회는 화현지음 가야금 연주, 한국무용 원향지무, 고고장구가 식전행사로 펼쳐졌다. '군민위안 봉축연합법회'는 제1부 괘불이운 2부 봉축법요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괘불이운의식은 함안수륙재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천수바라 작법으로 봉행됐으며 2부 법요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육법공양, 봉행사, 축사, 축가, 헌공,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 산회가의 순으로 진행됐다.

함안불교사암연합회장 원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경전에 이르기를 진리를 보는자, 나를 보는 것이고 형상이나 목소리로 볼 수 없다. 진리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부처님은 절대자인 위대한 신의 존재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자유자재의 무한한 존재이며 진리 그 자체"라고 말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법력이 깃든 등불이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조용찬 신도회장이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지난날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을 참회한다" 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춘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이날 함안군민위안봉축법회는 함안군사암 연합회장 원명 스님, 봉불사 지정 스님, 칠보사 정광 스님, 용정사 동준 스님, 발원통사 영공 스님, 흥복사 현법 스님, 백암사 법성 스님, 청룡사 수암 스님, 불연사 월암 스님, 조근제 군수, 조용찬 연합회 신도회장, 지희선 공무원불자회장 등 지역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하동 칠불사, 칠불괘불탱화 점안

하동 칠불사(주지 도응)가 동서 화합과 남북통일, 국태민안, 세계평화를 위한 칠불사의 발원이 담긴 칠불괘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5월 7일 칠불사 선다원 앞 광장에서 열린 칠불괘불탱화 점안법회는 명종 5타, 도량결계, 불사 경과보고 및 괘불소개, 헌음1, 점안의식, 헌음2, 괘불제막, 헌화와 칠불헌공, 축원, 육법공양, 축사, 법어, 감사패 전달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국제일선원 하동 칠불사가 동서 화합과 남북통일, 국태민안, 세계평화를 위한 칠불사의 발원이 담긴 칠불괘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은사스님이신 제월당 통광 스님이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전소된 칠불사를 복원하시면서 내신 원력을 이제야 실현하게 됐다"며 "쌍계사 방장인 고산 혜원 대선사가 열반 전 불화의 구체적인 구도를 잡아주셨고 직접 화공까지 소개해주셔서 3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하게 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도응 스님은 이어 "지속적인 괘불재를 통해 칠불사가 일곱 부처님이 탄생한 도량임을 널리 알림으로써 동국제일선원이라는 선수행 도량의 위상을 확립하고 칠불문화제를 지방 문화 행사에서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키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칠불괘불의 점안식은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을 증명법사로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과 진주 보광사 주지 현도 스님이 집전해 불교전통방식으로 여법하게 봉행됐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칠불의 선맥과 고산 대종사님의 계맥과 통광 스님의 유지를 선양하고자 하는 도응 스님의 발심원력과 칠불 행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가야불교의 찬란한 모습을 담은 칠불탱화 불사의 원만 회향으로 이어졌다"며 "도응 스님의 무량 원력은 일곱 부처님의 지혜로 승화되고 선원의 선풍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우담종문회 다례봉재 및 수계산림

제4대 이사장에 불곡사 서암 도홍 스님 취임



사단법인 우담종문회(회장 도홍)는 5월 4일 창원 불곡사 관음전에서 제162주년 조사단 영사 다례봉재 법회와 48회 합동수계산림, 제4대 이사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 근파 스님, 선파 스님, 능산 스님, 법산 스님, 묵암 스님, 거산 스님, 고암 스님, 옥산 스님, 원종 스님, 만산 스님, 영산 스님, 송운 스님, 법정 스님 등 문도스님과 이성품화 불자 및 보리수합창단이 참석했다.

162주기 조사단 다례봉재는 삼귀의례에 이어 반야심경 봉독, 헌시낭독, 종사영반, 추모곡 합창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48회 합동수계산림법회는 전계아사리 능산 스님, 갈마아사리 근파 스님, 교수아사리 선파 스님을 증명법사로 사미 법안 스님과 사미니 수진 스님이 사미십계를 수지했다. 이어진 구조계 수계법회에서는 보운 스님이 구족계를 수지하고 은사스님인 능산 스님으로부터 수계첩을 받았다.

이어 우담종문회 원로의장 근파 스님은 만장일치로 추대된 도홍 스님에게 제4대 이사장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사장 도홍 스님은 "재취임하면서 책임이 무겁다. 문도의 화합과 소통에 힘쓸 것"이라며 "역대 조사스님들의 유품과 문헌등을 보관 전시할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능산 스님과 도홍 스님은 대한불교법화종 원로 근파스님으로부터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은암문화재단 박청용 작가 초대전

'기도하는 사람들' 주제로 열려

은암문화재단(이사장 신공, 김해 동림선원 주지)은 4월 29일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김해 동림선원 내 은암갤러리에서 박청용 작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열린 박청용작가 초대전은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박청용 작가는 염원의 마음, 마음의 소리를 '기도하는 사람들'로 담아내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단순화된 형태로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 박청용 작가는 작가 스스로의 내면 탐구와 삶 속, 유 · 무형의 모습들을 붓끝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은암문화재단은 4월 29일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김해 동림선원 내 은암갤러리에서 박청용작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명상하는 사람들' '하늘바다' 등 박청용 작가의 40여 작품은 은암禪문화센터 1층 은암갤러리 및 연화홀과 2층 설법전, 3층 명상실 및 선차실에 전시된다.

은암갤러리에서 열린 오픈식에는 박청용 작가, 신공 스님, 쿠무다 주석 스님, 조력장인 김우영 씨와 시민들이 함께했다.

주석 스님은 축사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좋은 작품을 보시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행복의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라며 "이 작품세계를 통해 불자님들도 일반인들도 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힘들었던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되는 40여 작품은 개인 구입이 가능하며 작품 판매수익의 일부는 은암문화재단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日 사찰, 지역민 총의로 150년만에 재창건

수해 입고 150년 전 끝내 폐사
소실 위기 불상들, 주민이 지켜
5년전부터 사찰 복구 여론 커져
고야산 진언종에 정식으로 등록

박영빈 객원기자


150년만에 재창건된 소후쿠지와 부흥을 이끈 주민들. 사진출처=츄니치 신문

350년 전 수해로 폐허가 되고, 150년 전에 결국 폐사된 사찰이 지역 주민들의 총의로 재창건됐다. 5월 1일, 일본의 '츄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의 현지언론들은 새롭게 부흥한 사찰 '소후쿠지(綜福寺)'의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미에현(三重縣) 나바리시(名張市)에 소재한 소후쿠지. 지역의 전승과 현지 사료들에 따르면 이 사찰은 진언종으로 350년 전 큰 수해를 입은 것으로 전한다. 현지 언론들은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소후쿠지(總福寺), 또는 소후쿠지(宗福寺)라는 이름 사찰이 있었고, 350년 전 상류의 대형 저수지가 폭우에 무너지면서 마을과 함께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한다"고 보도했다. 지역주민들 역시 "수해 후의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임시로 불상과 불구만을 수습해 모셨다고 들었다. 그러나 150년 전 끝내 폐사됐다"고 증언했다.

사찰이 폐사됐음에도 지역주민들은 절의 본존불을 비롯해 6구의 불상과 불구들을 마을회관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 봉안해 지켜왔다. 심지어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동네 절'이라고 부르며 소중히 여겨왔고, 정기적으로 인근 사찰의 스님을 모셔와 법요도 운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5년 정도 전부터 주민들 가운데 '사찰을 부흥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회의와 모임 끝에 지역주민 49가구의 총의가 모여 소후쿠지 부흥운동이 본격화됐다.

사찰 공간은 기존의 마을회관을 좀 더 여법하게 리모델링하여 마련하고, 인접 사찰의 주지스님에게 사찰의 주지를 겸직해 줄 것을 부탁했다. 동시에 지역에 널리 정식사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종교법인 취득 절차를 진행했다.

절의 이름은 옛 기록에 나오는 '総'과 '宗'에서 한 자씩 따와 '綜'으로 통일했다.

지난해 여름 소후쿠지는 인근도시에서 30년 이상 휴면상태였던 사찰의 법인격을 인수하는 형태로 종교법인 인가를 취득하고, 주지를 겸직하기로 한 스님의 노력으로 고야산 진언종의 정식등록도 마쳤다. 봉안될 불상들도 마을회관에 모셔오던 불상을 수리하고, 법인격을 인수한 사찰에서 불상 1구를 이운해와 봉안하면서 사찰의 모습을 완전히 갖췄다.

지난 23일 소후쿠지 부흥불사 회향식에서 부흥불사 실행위원장을 맡아온 우치야마 카츠노리는 "소후쿠지의 부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고, 마을주민 모두의 총의"라며 불사를 이룬 의의를 설명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이렇게 주민들의 힘으로 사찰을 일으킨 것은 정말로 드문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지켜가고 싶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말했다.

아일랜드 공화국, 최초 베트남 사원 열어

민탐 파고다, 500명 동시수용 가능


잭 챔버스 국무장관과 틱 프억 후에 스님, 국제 베트남 불교계 인사들이 아일랜드 최초 베트남 불교 사원 개원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출처=디 아이리쉬 타임즈

더블린에 아일랜드 최초의 베트남 불교 사원이 문을 열어 화제다. 지난 5월 7일 아일랜드 일간지 '디 아이리쉬 타임즈'는 아일랜드 최초 베트남 불교 사원 개원 소식을 전했다.

아일랜드 최초의 불교사원 '민탐 파고다'는 더블린 노스사이드 산업단지 내 산업 건물을 개조해 건립했다. 산업시설에서 종교 시설로 건축물 용도 변경을 진행했으며 40만 유로(한화 약 58억원)가 소요됐다. 사원 건립 비용은 아일랜드와 해외 베트남 공동체 사람들의 불사와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사원은 매주 일요일, 설날, 부처님오신날, 어버이날과 같은 문화 축제를 위한 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개원식은 버밍엄 베트남 불교 사원의 틱 프억 후에 주지스님이 집전했으며 국제 베트남 불교계 인사들과 아일랜드 국무장관 잭 챔버스가 참석했다. 티흐 프억 후 스님은 "개원식에 집전을 할 수있어 큰 영광"이라며 사원에 대한 정부의 자비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에 있는 베트남 불교계에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순간을 전달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각고의 노력을 행한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축복을 전하고 싶다"며 "인연과(因然果) 법칙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선을 행한 이들에게 선이 돌아올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챔버스 국무장관은 "쿨룩 한복판에 이 아름다운 사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던 지난 날이 떠오른다"며 "불사를 통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아일랜드 국민과 베트남 공동체와 함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1979년 '보트 피플(베트남 전쟁 난민)'이 아일랜드에 첫 발을 내딛은 후 베트남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아일랜드로 이주한 베트남 인구 1만 명 중 4천여명이 베트남 불교도로 추정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러시아 틔바 공화국, 최대 규모 불교 사원 개원

12층 3만평 규모…6.3m 본존불
달라이라마 '툽텐 셰둡링' 명명


툽텐 셰둡링 사원 전경. 사진출처=사원 공식 페이스북

러시아 틔바 공화국에 최대 규모 불교 사원이 개원해 화제다. 지난 5월 3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러시아 틔바 공화국 '툽텐 셰둡링' 개원식 소식을 전했다.

러시아 틔바 공화국 수도 키질에 위치한 '툽텐 셰둡링' 사원은 56m에 달하는 12층, 3만평 규모로 러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며 법당에는 6.3m 진신사리 본존불과 5개의 신불상이 모셔졌다. 이 유물들은 1959년 티벳에서 가져온 것으로 달라이라마가 가사, 경전과 함께 기증했다. 사원은 티베트 문자로 쓰인 경전을 포함한 3천여 개의 불교 유물을 전시 할 예정이다. 사원은 승려들을 위한 기숙사, 공부방, 그리고 의료 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4월 28일 개원식에는 법요식과 틔반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틔반족의 제9대 캄비 라마인 겔렉 낫쉭 도르주가 주도했으며, 새로 선출된 칼미크족의 샤진 라마, 게세 텐진 최닥, 칼미크 라마 안자 겔룽 등 몽골과 러시아 각지의 불교 대표들이 참석했다. 틔바 공화국의 숄반 카라울 대통령 부랴티아 화국의 알렉세이 치데노프 대통령, 네팔 공화국의 러시아 대사 밀란 라즈 툴라다르가 참석했다.

틔바와 칼미키야의 불교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불교도들을 위한 새로운 수도원의 의미를 설명했으며 캄비 라마 '겔렉 낫쉭 도르주'는 "툽텐 셰둡링의 개원은 러시아 불교 발전의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장소의 탄생"이라고 말했다. 샤진 라마와 게셰 텐진 최닥은 "역사적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즐기고 있다. 이 사원이 종교적 명소가 되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교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1992년 달라이라마가 러시아에 방문했을 때 틔바 공화국의 주요 공항과 수도 근처에 달마 기념비 건립 위치를 결정하고 축복했다. 2012년 틔바 공화국 숄반 카라울 대통령이 달라이라마와의 대담 후 세르게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념비 건립 위치에 사원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14년 불자들의 불사와 비영리 재단이 모금한 성금으로 사원 건립의 첫 삽을 떴으나 코로나19의 유행과 관련 조직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28일 개원했다.

카라울 대통령은 달라이라마의 지도에 대한 틔바 사람들의 헌신과 감사의 표현으로 달라이라마 사원으로 명명했으나 2020년 달라이라마가 '툽텐 셰둡링'으로 공식 명칭을 부여했다. 현재 툽텐 셰둡링에는 인도의 티베트 사원인 드레풍 사원에서 온 6명의 승려와 틔바 승려 6명이 상주하며 하루 세 번 예불을 집전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봉축메시지 발표

2023년 베삭데이 맞춰 전해
부처님 가르침 핵심은 '실천'
"연기적 연결됨 인식해야"


최근 인도에서 열린 불교정상회의에 참석한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매년 음력 4월 보름을 '베삭데이(Vesak day)'로 1999년 제54차 UN총회에서 공식 채택한 이날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처님오신날로 기념되고 있다. 특히 남방불교권과 여러 경전들에 따르면 이날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열반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봉축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도 봉축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5월 5일 '타임즈 오브 인디아', '아웃 룩 인디아' 등의 외신들은 달라이라마 사무국의 발표를 인용해 메시지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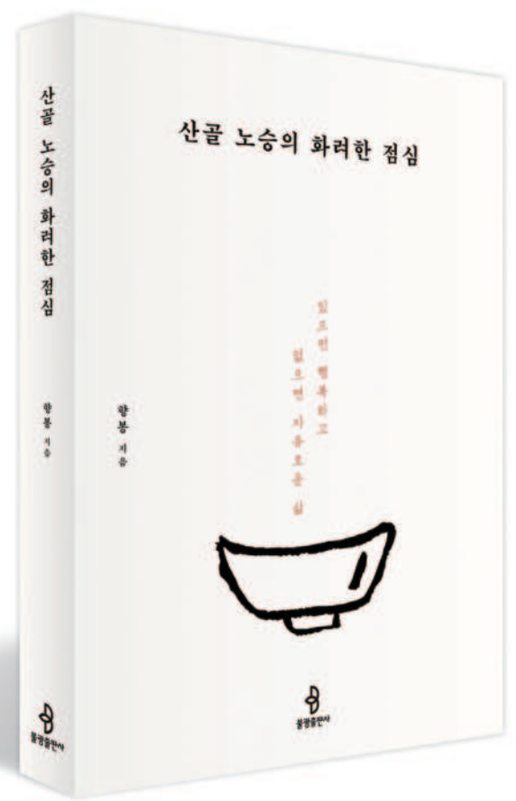
달라이라마는 공식 사무국을 통해 발표한 봉축메시지에서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대열반을 기념하는 이 상서로운 기념일에 전 세계의 동료 불교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와 지혜를 결합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이타적 정신인 보살행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실천에 대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라며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연기적으로 연결됐음을 인식하고 오늘날 전 세계 80억 인구 모두가 행복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바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이 특별한 날에 나는 영적인 형제자매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할 것을 바란다. 따뜻한 마음은 세상의 평화와 화합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그래, 이 맛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같은 맛,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스님의 글맛!

1980년대 법정 스님, 오현 스님과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며』로 필명을 드날렸던 향봉 스님이
우리 앞에 다시금 '산골 노승의 글쓰기'를 내놓았다.
유쾌하게 이어지는 문장을 따라가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다가도
어느새 가슴이 먹먹하고 절절해진다.
'눈물방울 두어 방울' 적시지 않고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다.
스님이 겪어온 삶의 역정과 치열한 구도기 속에서
진리와 한몸이 되어 살아가는 '자유인의 삶'이 드러난다.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로운 삶
향봉 지음 | 248쪽 | 값 17,000원

향봉 스님
익산 미륵산 사자암 주지.
상좌도 공양주도 없이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한다. 어린 시절에 백양사로 출가했고, 해인사 선방을 거쳐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실세'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면에 1973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으로서, 수필집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6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늦은 나이에 철이 들어,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으로 15년의 치열한 구도행을 떠났다. 이후 돌아와 20년째 사자암에 머무르며, 머리와 수염이 허연 미륵산의 한가로운 노승으로서 할 일 없이 평화와 자유 누리며 살고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절터서 찾은 '명작' 신라 불교유산들

불교중앙博 · 불교문화재硏 등 5월 12일~6월 25일 특별전

부처님오신날 맞아 3개 기관 공동
최근 신라불교 관련 발굴성과 조명
선림원지 금동입상 첫 공개돼 '눈길'
'신라왕경 · 지방 불교문화' 세미나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군위 인각사 출토 청동정병.

지난 2015년 10월 양양 선림원지 발굴 현장에서 통일신라 추정 금동보살입상이 출토됐다. 대좌를 포함해 50cm에 달하는 대형 금동보살입상은 그 형태가 온전하고 출토지가 확인되는 불상 중 가장 컸으며, 화려하게 조각한 대좌와 광배도 그대로 남아있어 출토 당시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보존처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부러지거나 형태가 변형되기 전 금동보살입상의 형태를 3차원 이미지로 복원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등 신라 불교유산 발굴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미등)은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 ·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전 '명작-흙 속에서 찾은 불교문화'를 개최한다.

5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경주, 삼척, 군위, 함안, 양양 등 절터에서 발굴된 불교문화재들이 대거 소개된다. 특히 화려한 영락 장식, 광배에 조각된 섬세한 문양으로 신라 불교미술의 명작으로 꼽히는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이 5년간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끈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됐다. 1장 '기와와 전돌: 사찰 건축의 재료'는 신라 사찰 건축에 사용된 다양한 형태의 기와와 전돌을 소개한다. 2장 '사찰의 장엄'에서는 사찰 건물 내외를 장엄한 다채로운 장식구가 선보이며, 3장 '금인(金人)으로 나타나신 부처님'에서는 절터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다양한 재료와 크기의 불상을 전시한다.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5년간에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첫 공개된다.

4장 '사찰의 일상'에서는 1300년 전 신라 사찰에서 스님들이 사용한 생활용기나 생활용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5장 '왕경의 불교문화, 지방으로 전해지다'에서는 경주지역 출토품과 군위, 삼척, 함안에서 출토된 불교문화유산을 서로 비교할 예정이다. 군위 인각사지와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 출토된 완형의 통일신라 정병 4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

특별전과 함께 신라 왕경 · 지방 사찰의 불교문화를 살펴보는 자리도 진행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신라왕경과 지방 사찰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주, 삼척, 양양에 분포한 신라 사찰의 최신 조사 ·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왕경과 지방 사찰의 불교문화를 비교 · 연구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주제발표는 △경주 황룡사 회랑 외곽 공간에 대한 최신 조사 성과(최문정,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왕경의 산지가람, 황용사의 실체와 성격(이영환, 불교문화재연구소) △신라 지방 승관사찰, 삼척 흥전리 사지의 조사 성과와 의의(박승현, 불교문화재연구소) △신라 지방 선종사원, 양양 선림원지 조사 성과와 의의(장정민, 한빛문화재연구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최태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유범(배재대학교), 유근자(동국대학교), 차순철(서라벌문화재연구원)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전시와 관련한 전문가 특강도 마련된다. 6월 8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통일신라시대 정병의 특징과 양식'을, 임영애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가 '명작,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의 특징과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각 · 민화로 전하는 '다나의 꿈'

(사)다나, 오는 5월 21~26일 자선전시회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서
스리랑카 IT교육관 불사기금 모연



김법영 작가의 작품 '부증불감'

국제구호와 노숙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불교복지단체 (사)다나의 법당에는 조금은 특별한 후불탱화가 있다. 전각으로 구성된 후불탱화에는 부처님이 집을 고치고, 함께 공을 차며, 밥을 지어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모습들이 담겼다.

이 특별한 서각 후불탱화는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나누는, 아픈 이에게는 약을 나누는, 배움을 원하는 이에게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걸음이 필요하다'는 (사)다나 회장 탄경 스님의 모토가 그대로 투영됐다. (사)다나의 전각 후불탱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사)다나는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5월 26일까지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다나의 꿈' 자선전시회를 연다. 전시회 개막식은 5월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번 자선전시는 스리랑카 오지 마을인 고디가무와(Godigamuwa)에 IT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불사기금을 모연하기 위해 열린다. 이를 위해 후재 김법영 전각 작가가 전각 작품 50여 점을, 자운 정혜진 민화 작가가 민화 작품 20여 점을 출품했다.

김법영 작가의 작품은 (사)다나 법당 후불탱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반야심경〉의 구절마다 우리를 닮은 부처님이 전각으로 표현됐다. 이는 "우리가 곧 부처"라는 작가의 뜻이 담겼다.

"스님이 좋은 일을 하셔서 작품을 출품했다"고 말한 김법영 작가는 "(사)다나에서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 봉사하고 포교한다. 그런 모습들이 후불탱화를 조성하는 데 많이 참고가 됐다"면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부처임을 확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사)다나의 자선전시회에 대해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다나 법당의 후불탱화에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삶과 함께하시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다시 종이에 다시 내려서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스리랑카 산골 마을에 있는 절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을 건립하려 한다"면서 "부처님 말씀과 교육의 기회를 주어 그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불사이다. 다나의 이 발걸음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하고 감동을 주는 불교로 나아가는 길인만큼 힘찬 응원을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다나 고문)은 격려사에서 "다나는 오는 7월경 스리랑카의 오지에서 문명의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에게 교육관을 지어서 컴퓨터 교육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교육관을 건립하려 한다"면서 "스리랑카 아이들의 교육관을 마련해주는 전시회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사)다나 회장 탄경 스님은 "한 끼의 따뜻한 밥이나 따뜻한 옷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교육이라는 나눔이 가장 중요하다. 즉, 지혜의 나눔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눔"이라면서 "이번 전시는 아주 작은 그림들로 교육관을 세워보고자 한다. 복은 나눔에서 시작되며 그 나눔은 천지를 덮는 복전이 된다.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삶은 실전이다.
허학(虛學)으로 가득한 껍데기는 가라!"
여기, 현실에서 통하는
최강의 공부 명상법이 시작된다!

공부를 어려워하며 일과 인생 사이에서 자신감을 잃고 흔들리는
공부 약자들을 위한 역전의 공부 명상법!
열등감을 실력으로 탈바꿈하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통찰력은 덤으로 얻게 된다.



"단순한 방법으로 공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정리해서 삶의 가성비를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명상의 가치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국내 최다(6개) 박사학위 소지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 180여 편 수록
자현 스님의 30년 공부 내공과
머리가 확 트이는 명상 비법을
낱낱이 공개한다!

자현 스님
초등학교 성적표에 '가'도 있고, 학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나쁜 기억력에 독수리타법으로 속도마저 밀리는 자현 스님.
평범한 머리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명상법을 계발해,
6개의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7번째 박사학위를 앞두고 있다.

단박에 성적과 행복을 끌어올리는 명상 비법
최강의 공부 명상법
글 자현 · 그림 김재일 | 288쪽 | 값 18,000원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 故한석홍 선생이 촬영한 석굴암 금강역사상들. 사진 왼쪽이 좌측 금강역사상, 사진 오른쪽이 우측 금강역사상이다.

간다라부터 신라까지 '금강역사상' 변천 망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금강역사상-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
임영애 지음
동국대 출판부
2만5000원

금강역사상 변화사 일목요연 정리
헤라클레스 닮은 간다라 금강역사
붓다 수호임무 맡은 호위신장 역할
동아시아선 2구 조성, 수문장 의미
신라에선 친근한 모습으로 '현지화'

붉으락푸르락 몹시 화가 난 얼굴에 울퉁불퉁 근육질 몸매. 당장이라도 뛰어 나가 삿된 무리를 무찌를 것 같은 역동적인 조형. 경주 석굴암 금강역사상은 본존불과 함께 가장 눈길을 끄는 도상으로 손꼽힌다.

고대 불교조각 전문학자인 임영애 동국대 문화재학과 교수에게 금강역사상은 유독 끌리는 도상이다. 석굴암의 금강역사상을 마주한 순간부터 "그냥 좋았다"는 임 교수는 "불끈 쥔 주먹을 허공에 띄워 관자놀이 대고 있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한다.

오랜 시간 금강역사상을 애정을 갖고 연구했던 임 교수가 최근 발간한 〈금강역사상-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은 간다라에서 중앙아시아, 중국과 한반도까지의 금강역사상을 총망라한 연구서다.

이 연구서는 1~2세기 간다라부터 9세기 신라까지, 각 시기마다 또 지역마다 금강역사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학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금강역사의 모든 것을 담은 한 권의 책'이라 지칭할 만하다.

금강역사상 변천사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저자의 여정은 간다라 불교미술에서 시작된다. 초기 불교미술에서는 금강역사를 '바즈라파니(Vajirapani 伐折羅陀羅)'라고 부른다. '바즈라'는 금강저(金剛杵)를 의미하며, '파니'는 손안에 있다는 뜻이다. 바즈라파니를 한역해 집금강신(執金剛神) 또는 금강역사(金剛力士)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금강야차(金剛夜叉), 집금강야차(執金剛夜叉) 등으로 부르는데 야차는 호법신으로서 금강역사의 본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간다라 금강역사는 붓다를 중심으로 좌우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장신구는 걸치지 않았지만 헤라클레스를 닮거나 젊은 청년의 모습이거나 늙은이의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 간다라의 금강역사는 서양 고전 미술의 헤라클레스 도상을 차용했을까. 임 교수는 그 단초를 금강역사의 본성인 '야차'에서 찾는다.

인도에서 야차는 풍요와 재물을 담당한 귀신이었지만, 제석천에게 금강저를 넘겨받아 붓다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다. 임 교수는 "제석천에게 받은 금강저만으로도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외면적으로도 더욱 강력한 힘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미 간다라 지역에 알려져 있던 서양 미술의 헤라클레스 도상을 떠올리는 일은 당시 간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다라 금강역사상의 공통점은 동아시아 금강역사상처럼 쌍이 아닌 한 구인 점, 또 붓다 바로 옆에서 붓다를 수호하는 모습이란 점이다. 간다라에서 금강역사의 주된 역할이 붓다를 수호하고 간다라 악룡인 아파랄라용왕을 퇴치하는 일이므로, 정확히는 붓다의 출가부터 열반의 순간까지만 등장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중앙아시아의 금강역사는 갑옷을 입기도 하고 보살상처럼 머리에 관을 쓰거나 천의를 걸치기도 한다. 수호신으로서 위상이 더해진 것이다. 척박한 환경의 중앙아시아인들에게 현실적인 수호신으로서 경배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금강역사상은 크게 다른 면모를 보인다. 우선 쌍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금강역사가 서 있는 위치도 붓다의 옆이 아니라 문밖이다. 저자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금강역사상이 지켜야 할 영역이 훨씬 커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쌍으로 배치된 이유는 중국 고대의 좌우대칭 관념, 험악한 얼굴은 이인화가 극대화 된 호인의 이미지에서 찾았다.

신라시대 금강역사상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강렬한 모습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부에서 들여온 금강역사상이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변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는 단순한 수용 과정이 아니라 신라인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모습이자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금강역사상이 외부에서 신라로 들어왔지만, 신라인들은 그 모습을 우리의 감성에 맞게 바꿨다"며 "금강역사상을 우리의 감성에 맞게 바꾸는 일은 단순한 수용과정이 아니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부감없이 친숙하게 여길 것을 염두해 둔 배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임 교수의 저서는 동국대 출판문화원이 시행하고 있는 '저서출판 지원사업'을 통해 발간됐다.

▲저자 **임영애 교수**는?

이화여대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주대 교수를 거쳐 현재 동국대 문화재학과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동국대 박물관장과 불교학술원 문화재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운영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 서울시와 강원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역불교조각사〉, 〈교류로 본 한국불교조각〉 등 여러 권의 저서와 100여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했으며 석굴암에 대한 연구서를 준비 중이다.

조선 불교 지켜냈던 용성 조사 사상 조명



용성 사상 연구
진관 지음
운주사 / 2만원

일제강점기 민족대표 33인이자 왜색불교로부터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선각자 용성 스님(1864~1940, 사진).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이자 독립운동가인 용성 스님의 사상과 불교실천운동을 당대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책이 나왔다.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 스님이 최근 박사논문을 수정 보완해 펴낸 〈용성 사상 연구 · 백용성의 실천운동을 중심으로〉다.

앞서 용성 스님의 생애와 행적, 포교 활동 등의 다양한 연구는 이뤄졌지만 단행본 학술서가 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불교실천운동이라는 별도의 관점으로 용성 스님의 삶을 조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불교실천운동 관점으로 생애 조망
논문 아닌 단행본 학술서로는 처음

이 책은 조선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역사의 대변혁기, 혼란기에 시대적 상황에 맞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간 선구자 용성 스님의 삶과 사상, 활동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용성 스님은 선사뿐만 아니라 율사, 독립운동가, 경전 번역가, 불교저술가, 대중포교사, 불교개혁 운동가 등 수많은 호칭이 붙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다양하다. 무종단, 무교단의 상황에서 조선불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일생을 바쳐 노력했으며, 계율을 준수하는 비구승 중심의 교단을 확립하기 위해 힘썼다. 무엇보다 출가자와 교단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임제선을 핵심적인 수행 기조로 하는 전통교단을 확립하고자 진력했다. 다양한 수행활동을 기반으로 포교와 역경, 선농일치, 대각운동 등 불교실천운동에 매진해 근대불교사와 민족운동사에도 큰 자취를 남겼다.

책은 1장 서론을 시작으로 2장에서 용성 스님이 태어난 시기의 시대적 배경, 출가와 다양한 수행체험, 4차에 걸친 깨달음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일제 강점 후 조선불교계의 변화를 짚어보고, 그 속에서 용성 스님의 도심포교, 불교대중화, 대각사 창건, 임제선 선양, 금광경영 등과 독립운동가로서의 행보 등을 고찰한다. 4장에서는 용성의 불교실천과 대각운동을 살펴본다. 서대문감옥에서의 깨침 이후 역경과 출판을 통한 문서 포교, 선학원 건립과 선수행 결사, 대각교 창립과 대중선 운동, 건백서 제출과 만일참선결사회 창립, 해외 포교와 경제적 가립을 위한 활동 고찰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 5장은 대각사상 선양을 위한 활동, 일제의 간섭으로 대각교가 해산하고, 이로 인해 불교실천운동이 좌절되는 과정과 용성 스님의 열반, 남겨진 과제를 다뤘다.

저자 진관 스님은 "암울한 격변의 시대적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신과 조선불교, 민족을 위해 치열하고 투철하게 활동한 용성의 삶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는 데 있어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0~5/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종교학자최준식교수의너무늦기전에들어야할카르마강의	최준식	김영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네가지마음챙기는공부*대념처경과그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5	깨달음에이르는알아차림명상수행명상치료5불교심리학과위빠사나수행의지침서	아날요/이필원 외	명상상담연구원
6	염불모든것을이루는힘(권수염불법문)	원영굉오/정원규	불광출판사
7	꾼달리니딴뜨라	스와미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8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문법해설을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9	화엄경을머금은법성게의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10	낡은 옷을 버려라–법정스님 원적 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노래하는 스님이 건네는 '위로'



내가 웃자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도신 지음
담앤북스
1만8천원



평생 노래를 하며 2018년엔 시인으로 등단한 도신 스님은 첫 산문집에서 '노래하듯 전하는 응원가'로 삶에 지친 이들을 위로한다.

긴 터널서 방황하는 마음에 한 줄기 빛 되길
"지금 이 순간이 기적…당신과 나도 기적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마음이 바짝 말라 있으면 불이 잘 붙지. 촉촉이 젖어 있으면 끌 시간 충분한데….'

〈법화경〉 '비유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을 설했다. 탐 · 진 · 치 삼독이 곧 타오르는 불이고, 이를 보시와 인욕, 선행으로 끌 수 있다는 가르침을 남겼다. 30년 넘게 대중 앞에서 음성공양을 올린 도신 스님은 현대사회 사람들의 바짝 말라버린 마음이 조금은 더 촉촉해지길 바라면서 펜을 잡았다.

사실 스님이 글을 지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시인으로 등단했다. 지난해에는 〈웃는 연습〉이라는 첫 시집도 펴냈다. 하지만 산문은 처음이다. 노래하는 스님이 시에 이어 새롭게 써내려간 사유와 위로. 〈내가 웃자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는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는 이들이 때론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한 번의 심호흡을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오랜 수행생활을 하면서도 긴 터널을 지나왔다고 털어놓은 스님이 뒤늦게 배운 건 바로 웃음. 결국 내가 웃으니 나무가 춤추고, 과거 경험한 몽환의 터널에선 작은 빛을 볼 수 있었다. 그 빛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터널을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 노래가 아닌 글로 독자에게 다가간다. 좋은 노랫말을 찾고 쓰다 보니 자연스레 시와 친해졌고, 그렇게 시를 가까이하니 사유는 깊어졌다.

'마당을 쓸고 나면 발자국이 남는다. 삶이 모순인 것이다. 모순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그 모순 때문에 사색을 하게 되고 자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발자국이 남더라도 마당은 쓸어야 한다.' –마당을 쓸고 나면

모순덩어리인 인생에서 무엇 하나 모순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 그런 모순 때문에 소중한 마음을 다치거나 벗어나려 애쓰지 말자는 따뜻한 위로. 그저 그 덕에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꿔보자는 잔잔한 조언을 건넨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스님이다.

1장은 종교적 깨달음을 주제로 스님이 느낀 바를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2장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장은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4장은 자연이 주는 경이, 5장은 도신 스님의 개인사가 담긴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다.

도신 스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특히 '무상'의 관점을 추천한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다. 1~5장에서 각각 다루는 주제는 모두 한 번쯤 고민했을 법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유발하는 존재들도 결국엔 다 사라진다. 고민들도 그렇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여러 잡념들도 곧 사라질 터. 내 마음이 괴로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노래하는 도신 스님이 노래하듯 전하는 응원가. 이제는 당신이 웃을 차례다. 터널을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당신이 그저 무사히 빠져나오길. 잊지 말자. 대낮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밤하늘에 태양빛을 볼 수 없다 해도 그것이 없는 건 아니다. 어제가 쌓여 오늘이 된 매일이 기적이다.

▲도신 스님은?

'노래하는 수행자'로 널리 알려진 도신 스님은 여덟 살의 나이에 예산 수덕사로 입산해 인곡당 법장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76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0년 송광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우리나라 대표 기타리스트 신중현 씨, 가수 이남이 씨와 교류하며 기타와 음악을 배웠다. '중생의 아픔이 다하는 날까지 노래를 멈추지 않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1991년부터 6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했으며, 20여 차례의 단독 공연을 개최했다. 2019년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직접 작사하며 시심을 키워 온 스님은 월간 〈우리시〉와 계간 〈서정시학〉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시인의 길을 걷게 됐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박사)에 재학 중이다. 2022년 시집 〈웃는 연습〉을 발간했다.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재심호계위원, 초심호계원장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하는 한편,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2012년부터 서산 서광사 성역화 불사에 매진해왔다. 2023년 3월 덕숭총림 수덕사 제24대 주지에 임명됐다.

간단한 재료로 즐기는 비건 생활

'요알못'도 따라하는 149가지 채식 레시피



매일매일 채식밥상
홍승 지음
담앤북스
2만4천원



1세대 사찰음식 전문가이자 프랑스 르꼬르동블루에서 사찰음식 특강을 하는 등 음식을 통한 포교에 나서고 있는 홍승 스님.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혹은 지구 환경을 위해 채식을 결심했지만 비싼 재료와 복잡한 조리법 때문에 선뜻 실천하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스님이 냉장고 속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비건 요리 149가지를 선보인다. 〈매일매일 채식밥상〉을 통해 가지와 감자, 버섯, 두부 등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비건 요리에 도전해보자. '요알못(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재료 준비부터 요리하는 법, 요리할 때의 주의사항, 다양한 양념의 쓰임새 등을 글과 사진으로 상세하게 보여준다.

스님은 책 서두에서 '짠맛 내는 네 가지 양념과 쓰임새'를 먼저 설명한다. 사찰음식에서 기본이 되는 양념으로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보관방법까지 간략하게 서술했다. 더불어 요리 초보자를 위한 기본 다지기 △즉석 고추장 △겨자 소스 △초고추장 △간장 양념장 △채수 △맛간장 만드는 법을 정리해 음식의 맛을 살릴 수 있게 안내한다. 또 149가지 요리 방법을 설명하면서 책 하단에는 요리마다의 팁을 전수한다. '버섯들깨탕'의 경우 '들깻가루가 들어가는 음식에는 찹쌀가루를 넣어야 맛있다'는 틈새 조언을 달았다.

〈매일매일 채식밥상〉은 채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재료별로 레시피를 묶고, 한 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해 지속 가능한 채식 생활을 돕는다. 사찰음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에서 금하는 오신채(파 · 마늘 · 부추 · 달래 · 흥거)를 쓰지 않는 것이 특징. 동일한 재료 또는 함께 어울리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한데 모았고 김치, 장아찌, 국, 죽은 물론 수삼냉채와 연꽃구절판 등 특별한 손님을 위한 레시피도 소개한다.

스님은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 사대의 조화가 깨져 병을 앓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돼 인간의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육류 생산을 줄이고 채식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이라고 강조한다. 육식 위주의 식단이 탄소 배출을 늘려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식물성 식품 섭취 확대로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홍승 스님은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채식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며 "갑자기 육류 섭취를 끊기보다는 하루 한 끼, 맛있는 채소 식단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보라"고 제안한다. 윤호섭 기자

▲홍승 스님은?

1984년 동화사 부도암에서 출가한 이후 사찰음식 시연 · 전시 및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1세대 사찰음식 전문가다. BTN불교TV '홍승 스님의 자연을 담은 사찰음식', Food채널 '풍경이 있는 요리', BBS불교방송 '테마가 있는 사찰음식' 등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찰음식 정규교육기관 '향적세계', 사찰음식체험관 강의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⑱ 뉴델리에서 며칠 ②

▶한줄 요약
난타는 붓다의 신통력으로 향취산과 천상 궁전을 보게 되고 붓다의 설법을 듣고 난 후 오로지 천궁에 날 것을 염원하고 범행을 닦고 또 닦았다.



난타, 붓다 따라 천상궁전에 가다

3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난타는 머리를 내저었다.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난타야 그리로 가보자구나.

붓다가 왜 향취산에 자신을 데려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난타는 붓다의 뒤를 따랐다.

얼마 후 그는 향취산에 서 있는 자신을 의식했다. 그는 붓다에게 어떻게 저를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신통력을 의심하는 것 같아 감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붓다의 경지는 붓다만이 아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도 붓다의 경지를 알 수 없기에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붓다가 붓다의 법신을 이루려면 오랜 세월 붓다가 되기 위한 덕목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난타는 알고 있었다. 과거의 보살들이 가장 먼저 닦았던 절대완전의 보시행을 완성해야 하며(布施波羅蜜), 계율을 지키는 수행을 완성(持戒波羅蜜)해야 하며, 번뇌의 속박을 떠나는 수행을 완성(出離波羅蜜)해야 하며, 어리석음을 떠나 존재의 궁극에 있는 실상을 깨닫는 수행을 완성(智慧波羅蜜)해야 하며, 몸과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고 도(道)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을 완성(精進波羅蜜)해야 하며, 시달림과 괴로움을 견디어 내는 수행을 완성(忍辱波羅蜜)해야 하며, 진실하여 거짓 없음을 수행하는 일을 완성(眞實波羅蜜)해야 하며, 굳게 뜻을 다지는 수행을 완성(決定波羅蜜)해야 하며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을 수행하는 일을 완성(慈悲波羅蜜)해야 하며, 그윽하고 기울지 않은 마음을 갖는 수행을 완성(舍波羅蜜)해야 한다. 그런 뒤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 마지막으로 4선정과 3명6통을 얻어야 한다.

4선정(四禪定)은 마음이 통일된 상태다. 첫 단계는 악심(惡心)의 작용을 끊고 고요한 즐거움을 맛보는 경지다. 둘째 단계는 개개의 분별에 빠지지 않고 정신집중(三昧)에 의해 북받쳐 오르는 즐거움을 나게 하는 경지다. 셋째 단계는 그 즐거움까지 초월하여 몸도 마음도 거울처럼 맑아지는 경지다. 넷째 단계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 정념청정의 경지다.

그렇게 마음이 통일되고 확호부동(確乎不動)한 경지에 들어 6통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운명을 알아내는 숙명통(宿命通), 시간 공간의 제약을 떠나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천안통(天眼通),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타심통(他心通), 모든 일을 다 들어서 알아내는 천이통(天耳通), 어떤 경우에도 자유자재한 신족통(神足通), 모든 번뇌를 끊어 버리는 지혜의 누진통(漏盡通), 이 여섯 신통력(神通力)을 얻은 후에야 숙주지(宿住智)를 얻을 수 있고 생사의 근본이법(根本理法)인 4제 12인연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 그런 뒤 선사(禪思)를 통해 세상을 조복 받음으로써 깨달음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다. 그렇게 깨달음을 완성하고 나면 향취산이 문제가 아니다. 이 우주의 어디라도 마음먹은 대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 그 세계를 알 수 없는 난타로서는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

-붓다시여, 진정 여기가 향취산입니까?

난타는 붓다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느니라.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까?

-차차 알게 될 것이니라.

난타는 이곳저곳 둘러보았는데 과일나무가 자우룩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곳저곳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한 과일나무 밑에서 암컷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난타가 바라보니 그 원숭이는 애꾸눈이었다. 애꾸눈 원숭이는 낯선 이방인들이 이상했는지 얼굴을 똑바로 들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타야 저 애꾸눈 원숭이가 보이느냐?

붓다가 난타에게 물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난타가 대답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애꾸눈의 원숭이와 너의 아내 손타라를 비교하면 누가 더 아름답겠느냐?

-붓다시여. 손타라는 마치 천녀와 같아서 용모와 거동이 제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원숭이를 그녀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 억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난타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자랑스런 어조로 대답했다.

-너는 천상의 궁전을 본 일이 있느냐?

붓다가 머리를 끄덕이고는 다시 물었다.

-아닙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곳으로 가보자구나. 눈을 꽉 감고 내 옷깃을 단단히 잡으려무나.



난타가 머뭇거리는 손길로 붓다의 옷깃을 부여잡자 갑자기 붓다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금세 지상이 눈 밑으로 멀어지면서 그의 몸이 빠르게 구름 속을 빠져나갔다. 푸른 하늘이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그들을 감싸 안았다. 그들은 그대로 그 빛살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난타가 천상에 닿은 것은 아주 잠깐 사이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땐 도저히 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난타야, 너는 천궁의 훌륭한 곳을 모두 보아두어라.

붓다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난타는 몇 번이고 고개를 흔들었다. 분명히 이것은 꿈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 붓다의 신통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붓다의 옷깃을 잡고 천상에 온 것일까 싶다. 붓다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참으로 신통한 일이다.

-붓다시여, 정말 여기가 천궁이나이까?

난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다.

-의심하지 말아라. 네가 보고 있는 세계는 분명히 천궁이니라.

-붓다시여, 이곳은 천궁의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붓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는 수미산 상봉에 있는 도리천이니라.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곳은 수미산의 정상이었다. 높이가 무려 팔만 유순이나 되는 곳이었다. 그 아래의 사만 유순은 사천왕 등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천왕천에서 상봉인 도리천까지 사만 유순은 천국이 없었다. 다만 그 공간에는 칠보로 화려하게 장엄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도리천은 바로 그와 같은 이름다운 공간을 올라와야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달리 제석천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삼십삼천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삼십삼천은 수미산 사방, 네 모퉁이에 있었으며 이들 상봉에는 또 각각 팔천이 있었다.

난타는 제석천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모든 하늘의 동산과 꽃과 열매와 목욕하는 곳과 천인들이 재미있게 노는 곳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북과 악기며 거문고와 퉁소 등의 미묘한 소리도 들었다. 아름다운 천녀들이 즐기는 모습도 보았다.

난타는 그렇게 구경하다가 한 성에 닿았다. 성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난타는 기절할 듯이 놀랐다. 그곳에는 천녀들이 모여 있었는데 속세에 두고 온 손타라와 비교되지 않을 천녀들이 모여 있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만 넋이 나가 소리치고 말았다.

-아아,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가 들어서자 천녀들이 천의를 하늘거리며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하나같이 자태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천자(하늘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난타는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한 천녀에게 물었다.

-이곳에 천자는 올 수 없습니다.

천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올 수가 없다니요?

-다른 곳에선 남녀 천인들이 뒤섞여 모든 쾌락을 느낄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붓다의 아우만이 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붓다의 아우?

-그렇습니다.

-붓다의 아우라면 바로 내가 아니오?

-그렇습니다. 난타님 만이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난타님은 출가하여 오로지 범행(梵行)만을 닦다가 목숨을 마친 후에는 이곳에 와 날 것이므로 우리는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타는 그 말을 듣자 너무나 기뻤다. 그는 뛰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붓다에게 돌아왔다.

-그래 난타야, 하늘의 훌륭함을 보았느냐?

붓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다.

-그러합니다. 붓다시여.

-그래, 어떠한 일들을 보았느냐?

-용서하십시오. 붓다시여. 처음엔 붓다께서 저에게 환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며 악한 감정을 품었으나 천녀들을 만나보고 난 후 이곳이 정녕 천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 천녀들을 보았다니 그 천녀들과 손타라를 비교하면 누가 더 아름답더냐?

붓다는 난타의 하열한 생각을 나무라지 않고 다시 물었다.

-붓다시여, 손타라는 그 천녀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천녀에게 손타라를 비교하는 것은 저 향취산에 사는 애꾸눈의 원숭이와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난타야 너는 청정한 행을 닦아 천상에 나야 하지 않겠느냐?

-붓다시여, 이제부터 굳건하게 범행을 닦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 청정한 행을 수행한 이는 뛰어난 이익이 있나니, 너는 이제 굳건히 범행을 닦아 장차 천상에 나 이러한 쾌락을 받도록 하여라.

-그러하겠습니다. 붓다이시여.

붓다는 그 길로 난타를 데리고 정사로 돌아왔다.

붓다의 뒤를 따라 돌아온 난타는 심기일전하여 수행을 열심히 하였다. 그는 오로지 천궁에 날 것을 염원하고 있었다. 범행을 닦고 또 닦았다.

3

아직 읽어야 할 글은 한참인데 오오스마 기자에게 이끌려 국립 도서관을 찾은 것은 한 시간 후였다. 노트를 계속 읽어야 할 것 같은데 대단하지도 않은 도서관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그의 성화를 이길 수가 없었다. 도서관으로 가는 내내 길에 서서 사 먹은 인도식 밀크티인 짜이 향기가 입가에 남았다. 녹차를 우려내 우유와 설탕을 타 뜨겁게 끓여 주었는데 다른 음료에 비해 그렇게 향내가 나지 않았다는 기억인데 유난히 향이 강했다.

짜이를 호르륵 호르륵 마시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보니 저만큼 개 두 마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나라 같았다면 물바가지라도 씌울 텐데 사람들은 무심이 지나쳤다. 오히려 곁에서 노상 방뇨하는 남자들이 더 이상해 보였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들은 끝까지 볼일을 보고 가던 길을 유유히 걸어갔다. 그런 나라였다. 문득 그녀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언제였지? 〈계속〉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⑩ 화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인내와 성철 스님의 참회



▶한줄 요약
참회란 우리가 나와 너, 선과 악의 양변을 떠나 중도로 보면 상대의 허물을 내 허물로 보고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의 정견과 지혜로 살아간다면 내 안의 평안도 쉽게 이루어지고 세상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 용서보다 스스로 참회가 먼저

현대인들이 가장 괴로움을 느끼는 스트레스와 화에서 벗어나려면 일시적인 효과의 힐링 명상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깨달음 명상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불교의 깨달음 명상 중에서 티벳불교의 최고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인내와 용서의 지혜와 대비되는 한국불교의 대표 선지식 성철스님의 참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화는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한다. 아마도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닐까? 캐나다 학자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를 "정신적,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뜨리는 자극에 대하여 자신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은 초조 불안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현대 사회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는 이것이 더 심해진다. 이처럼 스트레스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코올이나 담배, 그리고 더 나아가 약물과 마약에 의지하기도 한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쌓이면 신경 쇠약이나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건강의학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의 증표라고도 한다. 그리하여 급기야 〈스트레스는 나의 힘〉이라는 책도 나와 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쌓이고 해소의 적절한 시기나 방법을 몰라 이것이 우울증이나 화병으로 깊어질 때가 문제다.

스트레스와 화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유행하는 웰빙, 힐링, 웰니스 등의 말들이 대부분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관광, 치유, 음식, 여행, 운동, 명상, 요가, 심리상담, 의료, 명상앱 등과 관련된 사업이 크게 성장하여 하나의 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니 참선 명상도 이제는 시장논리와 사업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스트레스와 화에 괴로움을 느끼는 대중들은 그 자체가 고통인데 이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참선 명상도 상업화되고 소비의 대상으로 여겨지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흐름에 대하여 우리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인들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화의 괴로움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지혜와 수행으로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불교의 참선 명상의 지혜는 더 많은 대중들에게 믿음을 주고 삶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달라이라마의 화에 대한 대처법, 인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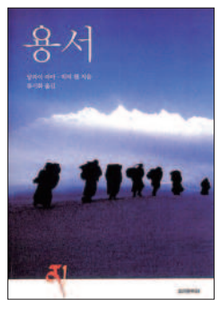
현존하는 세계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티벳 강점과 탄압에 맞서 인도로 망명하여 티벳불교의 세계화를 이끌어 내었고, 불교의 지혜와 자비 정신을 널리 전하고 있는 분이 달라이라마다. 그는 대중과 잘 소통하면서도 법문의 깊이가 있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티벳을 강점하고 살상과 억압을 멈추지 않는 중국을 용서하는 말과 행동으로 불교의 자비와 평화 정신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지구촌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달라이라마는 〈달라이라마, 화를 말하다〉 법문집을 내었는데, 이 책은 8세기 인도 산띠데바 스님의 저서 〈입보리행론〉 제6장 인욕품 강의를 엮어낸 것이다. 이 책에서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말한다.

달라이라마 역시 현대인이 직면한 최고의 괴로움이 화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입보리행론〉 "인욕품" 첫 번째 게송 "일천 겁 동안 쌓아 올린 보시와 붓다에게 올린 공양 등의 (어떤) 선행이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화로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한 말씀을 근거로 '화나 증오를 일으키면 천 겁 동안 쌓은 공덕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 고 강조한다.

〈입보리행론〉 두 번째 게송에는 "증오만큼 악한 것은 없으며 인내만큼 견디기 힘든 고행도 없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인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달라이라마는 〈입보리행론〉의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인내를 수행하라' 는 가르침을 화가 많은 이들에게 가장 노력해야 하는 수행법으로 제시한다. 즉 수행자는 인내하고 감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달라이라마의 화에 대한 대처법은 인내(忍耐)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인내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한다. 현대인이 고통 받는 화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대처법은 참고 견디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중 인욕바라밀을 말한다. 대승보살행을 닦는 수행자는 마땅히 인욕바라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용서란 남이 잘못했다는 것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기에
남 인격 근본적 모독과 같아
내가 참회하는 것 먼저돼야

달라이라마의 용서

화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대처와 수행법이 인내라면 '용서' 는 나를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중심이다. 달라이라마와 친한 중국인 친구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용서〉라는 책이 있다. '용서' 는 달라이라마가 40년 넘게 벌이고 있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중심 사상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움이나 나쁜 감정을 키워 나간다면,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만 깨어질 뿐이다. 하지만 그를 용서한다면 내 마음은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용서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이다."

중국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고 있는 티벳불교와 달라이라마의 인내 수행과 용서의 지혜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선과 악, 내 편과 네 편 등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내와 용서를 말하고 몸소 실천하는 달라이라마는 가히 세계불교계 최고의 지도자라 칭송할 만하다. 특히 인내와 용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실천하는 가르침은 한국불교가 특히 배울 점이라 하겠다.

성철스님의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가 없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성철스님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한글 법어집에서 '용서' 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사실 불교에서는 '용서' 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없다고 잘못한 사람과 싸우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 그러니 잘한 내가 잘못한 너를 용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상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인격에 대한 큰 모욕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의 불성은 꼭 같다(一切衆生 皆有佛性)' 고 주장합니다. 성불한 부처님이나 죄를 많이 지어 무간지옥에 있는 중생이나 자성(自性) 자리, 실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겉을 보고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한층 더 나아가서 세속 말의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1982년 음력 5월 29일 해인총림 방장 대중법어)

달라이라마가 강조하는 용서에 대하여 성철스님께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용서' 라는 말이 없다"고 한다. 용서라는 말은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는 양변에서 하는 말이니 중도 정견(正見)과 정어(正語)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처럼 티벳불교를 대표하는 달라이라마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성철스님 사이에도 견해 차이가 있다. 같은 대승불교문화권임에도 '용서' 에 대한 성철스님과 달라이라마의 입장 차이는 적지 않다. 성철스님은 가장 선한 이를 부처라 하고 가장 악한 이를 마구니라 하는데,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이나 부처님의 안목에서 보면 마구니와 부처는 모두 연기로 존재하니 한 몸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라 한다.

성철스님 "용서 아니라 참회"

그렇다면, 상대의 잘못과 악행에 대하여 불교에는 '용서' 가 없다면, 불교의 바른 대안은 무엇일까? 성철스님은 '용서' 대신 '참회' 를 제시한다.

"흔히 보면 '용서한다, 용서한다' 고 말하는데,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 란 없습니다. 용서란 내가 잘하고 남이 잘못했다는 것인데,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며,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남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내가 '참회' 해야지 그 사람을 '용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사전에서는 '용서' 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선(禪)의 종전인 〈육조단경〉 "참회(懺悔)"편에 "참이란 몸이 다하도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고 회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라고 한다. 참회란 우리가 나와 너, 선과 악의 양변을 떠나 중도로 보면 상대의 허물을 내 허물로 보고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의 정견과 지혜로 살아간다면 내 안의 평안도 쉽게 이루어지고 세상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달라이라마의 인내와 용서도 훌륭한 수행이지만, 용서도 아직 양변에서 하는 것이니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나와 남의 분별을 떠나 중도 정견을 세워서 나의 하물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허물과 잘못도 나의 잘못으로 참회한다면, 어찌 시비 분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가리왕에게 사지를 절단당하는 악행에도 화와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무아의 지혜이리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와 화나는 경계에서도 무아의 정견을 세운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평상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⑩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 한줄 요약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왕실 사람에서 하층민까지, 만인의 염원과 바람을 담아 관아의 장인들이 협업하여 조성한 한국산사 목조불상 중 명작이다.



왕실후원으로 장인들이 만든 명작 불상

정암산 법천사에서 조성

영주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은 1458년에 제작된 높이 72cm 목조불상이다. 1949년 흑석사 인근 순흥 초암사에서 한국전쟁 즈음 소백산 소개령에 의해 상호 스님이 불상을 등에 업고 와서 흑석사를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1992년 흑석사에 도둑이 들어 불상을 훔쳐가는 우여곡절 속에 불상 몸속에 봉안한 복장유물을 발견하게 됐다. 불상 조성기와 함께 경전 전적류, 직물류, 오곡, 오향, 오약, 칠보류, 사리가 든 사리용기 등이 쏟아져 나왔다. 불상과 복장유물은 1993년 국보로 일괄 지정됐다. 복장유물들은 안전을 위해 인근 이산면 파출소 무기고 신세를 지기도 하고, 온양민속박물관이 위탁관리하고 지금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불상에 얽힌 곡절이 대하서사다. 그때 나온 불상 조성 동참을 권하는 〈보권문〉과 불상 조성 〈복장기〉에는 뜻밖의 놀라운 기록이 담겨있다. 불상은 원래 1458년(천순 2년)에 정암산 법천사에서 조성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삼존상으로 밝혀졌다.

원래 불상을 봉안한 정암산 법천사는 어디에 있을까? 대체로 강원도 원주 법천사지로 추정한다. 궁금증이 일어 〈조선왕조실록〉에서 '정암산(井巖山)'을 검색했다. 〈세종실록〉 122권 세종 30년 12월 10일자 기사에 등장한다. 세종 30년은 1448년이다. 불상을 조성한 1458년 그 무렵이라 동일한 산일 가능성이 크다. 〈세종실록〉의 148권 지리지를 살펴보니 정암산은 양주도호부의 적성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적성현은 지금의 어디일까? 서울 도봉구에 해당한다. 위 세종 30년 기사에서도 정암산과 도봉산을 나란히 붙여 기록하고 있다. '정암산 법천사'는 한양도성 내에 있었을 공산이 크다.

불상에서 나온 〈보권문〉의 원 명칭은 〈정암산 법천사 당주 미타삼존 원성제연보권문〉이다. 초록 표지에는 '대공덕소'라는 표제를 묵서로 적었다. 보권문은 6첩 절첩으로 속지는 총 12쪽이다. 한 쪽의 크기는 31.7×15.9cm에 이른다. 그와 함께 아미타여래삼존상 조성 〈복장기〉도 나왔다. 〈복장기〉는 특이하게 청색 명주와 한지를 이어 붙여 만들었다. 불상 조성 발원 내용과 시주자 명단을 187행에 걸쳐 길게 기록했다. 그 펼친 길이가 3.8m에 이른다. 중요한 시주자 명단은 쪽빛으로 염색한 명주 천에 적고, 나머지 시주자 명단은 한지에 적었다. 시주자 명단에는 총 275명이 등장한다. 시주자 명단에는 태종의 후궁 의빈 권씨와 명빈 김씨,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 세종의 사위 안맹담 등 왕실 사람들을 비롯하여 구슬이, 막동, 개부처, 조생이, 금돌 등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갖추지 못한 하층민들까지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 발원문의 바람이 지극하다. "왕과 왕비, 세자 삼전께서 만세를 누리게 하소서. 여러 왕실 종친들도 저마다 평안하기를 빕니다. 전쟁은 영원히 종식되고, 나라는 태평하며, 부처님의 빛은 더욱 비추이고, 진리의 법이 이 땅에 구르기를 발원합니다." 대시주자는 지용천 부부와 이호 부부이고, 불상조성을 총괄기획한 대화주(大化主)는 성철 스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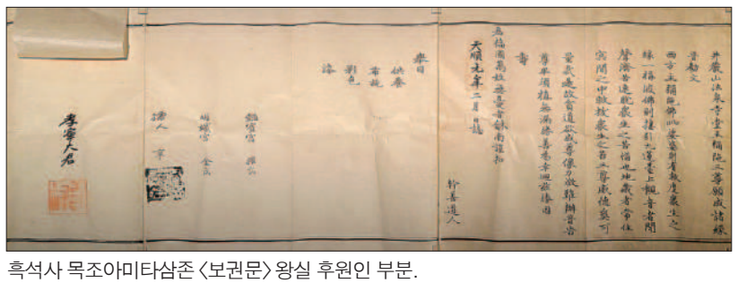
효령대군 등 왕실 적극 후원

조선시대 전반적인 숭유억불의 기조 속에서도 조선전기 사찰불사 후원 중심엔 역설적이게도 왕실과 그 종친들이 있었다. 때론 왕 자신이 사찰 불사를 후원하기도 했다. 세조의 평창 상원사 중창불사 후원이 그런 경우다. 조선전기 사찰불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왕실 인물을 뽑는다면 효령대군과 문정왕후가 대표적이다. 효령대군은 금강산 유점사, 회암사, 무위사 등 사찰 중수와 창건을 후원하였고, 세조 10년(1464년) 국가 차원으로 세운 원각사 창건에선 불사를 친히 감독하였다. 효령대군은 또 조선전기 대표 불화로 손꼽는 1465년 도화서 화원 이맹근이 그린 '관경십육관변상도' 제작을 주도하기도 했다. 세종 30년(1448년)에 간행한 〈묘법연화경〉 간행에도 시주 발원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복장기〉에 나오는 또 한 사람 명빈 김씨도 주목된다. 명빈 김씨는 1411년에 태종의 후궁이 되었다. 명빈 김씨는 흑석사 복장유물로도 봉안한 1432년 간행 목판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절첩에 이름을 올렸다.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에서 나온 금동불감과 금동석가여래 삼존상에도 발원 공덕주로 이름이 새겨져 있다. 숭유억불의 시기에도 부처님께 향하는 향도의 발길과 헌향의 향기는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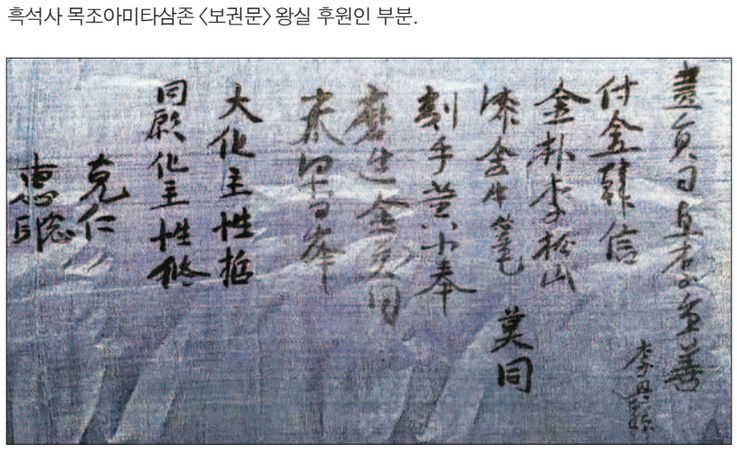
〈복장기〉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불상 제작 장인 명단을 부문별로 기록해둔 사실이다. 부문별 제작 참여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화원: 사직 이중선, 이흥손 △부금(付金): 한신 △금박: 이송산 △칠: 김우롱, 막동 △각수(刻手): 황소봉 △마조(磨造): 김혈동 △소목(小木): 양일봉 등으로 세세하게 기록했다.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흑석사 목조아미타삼존 〈보권문〉 왕실 후원인 부분.



흑석사 목조아미타삼존 〈조성기〉 협업 부분.

명단을 눈여겨보면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승장'이라 부르는 스님 장인의 명단은 보이지 않는다. 스님들은 화주로만 등장한다. 불상 제작은 정5품에 해당하는 사직의 직위를 가진 도화서 화원 이중선의 지휘 아래 관아의 장인 9명이 서로 분업적으로 협업하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불상제작에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알려주기도 한다. 화원은 조각의 밑그림을, 소목과 각수는 틀을 만들고 조형을 새긴다. 그 후 마조 담당 장인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그 위에 옻칠을 입힌다. 마지막 공정으로 부금과 금박 장인이 부처님의 금빛 몸을 조성했을 것이다. 마조와 칠과 부금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사포질로 표면을 매끄럽게 한 후에 옻칠을 여러 번 입힌다. 옻칠 위에 금칠이나 금박을 올려 옻칠개금으로 불상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분업체계는 〈경국대전〉과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도 두루 확인된다.

전적 · 직물류, 오곡, 오향 등 복장물

부처님 목조각은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선 내부에 장기를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복장유물은 한국불교의 독특한 문화다. 복장물은 부처님 몸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상징 그 자체다. 부처님의 몸 안에 봉안하는 복장유물은 크게 네 종류다. 첫째, 불사 조성기록. 둘째, 경전을 비롯한 불교 전적류. 셋째, 옷이나 직물류. 넷째, 오곡, 오향, 오약 등을 담은 오보병 등이다. 복장 물목과 의례는 불교의례집인 〈조상경〉에 잘 정리돼 있다.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에는 무엇을 봉안하였을까? 먼저 경전류에는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 2 · 3 · 4 · 5, 낱장의 묘법연화경 변상도, 〈불조삼경(佛祖三經)〉,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진언집에 나오는 부적 목판본 6장 등이다. 〈불조삼경〉은 중국 최초의 한역 경전인 〈불설사십이장경〉과 부처님 최후의 가르침으로 알려지는 〈불유교경〉, 당나라 위산 영우조사의 어록인 〈위산경책〉 등 세 책을 묶어 펴낸 합본이다.

흑석사 불복장에선 다양하면서도 섬세한 문양을 가진 48종의 직물도 나왔다. 직물들은 대개가 작은 천 조각 종류다. 그런데 문양과 색채가 대단히 아름답다. 쪽빛, 주홍, 하엽, 흰색, 황색, 흑에 가까운 감청색 등 다양한 색상이 보인다. 그것은 오방색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천 조각의 오방색은 천의 형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원, 사각형, 삼각형, 깃발 종류인 번 모양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그럼으로써 오방불의 부처님 세계를 구현한다. 숭고한 상징을 가지는 까닭에 직물에 성스러운 문양을 올린다. 칠보문, 여의구름문, '卍' 자문, 넝쿨 보상화문 등으로 아름답게 짰다. 복장의 직물류 중에서 특히 경전 사경 윗면을 덮어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사경 첩 모양의 덮개 보자기가 눈길을 끈다. 사경첩 덮개 직물들은 겉감과 안감을 서로 다른 색으로 물들인 명주를 덧대서 두터운 느낌을 준다. 보리수 잎을 형상화한 다섯 개의 천 조각도 인상적이다. 〈조상경〉에서 '오보리수엽(五菩提樹葉)'으로 표현한 복장직물이다. 오보리수엽은 오보병 안에 넣는 다섯 가지 보리수 잎을 말한다. 보리수잎은 곧 진리를 상징한다. 오방위에 안치함으로써 광명변조의 빛으로 우주만유에 확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같은 다양한 직물들은 불교의식의 상징기물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직조기법과 직물류를 소상히 알려줌으로써 생활문화, 의류학, 직물사 등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방위에 안치하는 복장물은 직물류 외에도 오향, 오약, 오곡, 오황 등도 두루 갖춘다. 오향은 정향(丁香), 침향(沈香), 목향(木香), 유향(乳香), 곽향(藿香) 등의 다섯 가지 청정한 향기다. 흰색 종이에 감싼다. 오약은 계피, 감초, 인삼, 부자 등이다. 이 같은 갖춤에는 청정과 치료, 소원성취, 성불, 상주불멸 등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 그것은 불성, 혹은 여래장의 씨앗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든 복장의 중심엔 사리기와 부처님의 정골 사리가 자리한다. 진리의 몸을 갖춘다.

아미타여래좌상은 단정하고 부드러우며 고요하다.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어깨선과 허리선이 늘씬하고 우아한 기품을 풍긴다. 풍만함보다는 균형 갖춘 이상적인 비례미가 느껴진다. 두 손과 발은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두 손의 모양은 대단히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두 손은 아미타구품인 중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양 볼은 탄력이 넘치는 가운데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계신다. 법의의 의습 처리나 표현, 상호, 자태 등에서 어디 하나 부족한 데가 없고, 군더더기가 없다. 깔끔하고 단정하다. 그러면서도 모든 법식을 구족하고 있다. 불상에 인자함, 부드러움, 유려함, 당당함, 고요함, 우아함, 기품 있는 고귀함 등이 두루 흐른다.

예술로 이룬 고귀한 절대적인 미, 불교조각으로 이룬 예술적 성취가 깊은 감동을 준다. 그 불상의 몸 안에 한 시대의 삶의 편린과 무궁한 생명력의 상징물들을 규범 갖춘 의례와 법식으로 내밀하게 복장했다. 왕실 사람에서 하층민까지 만인의 염원과 바람을 담아 관아의 장인들이 협업하여 진리와 자비의 법신을 완성했다. 한국산사 목조불상의 불후의 명작으로 빛난다.

〈사진작가〉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7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계묘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제주지사	김용덕		H 010-3697-2441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현대불교신문

불교인문학살롱 ⑩ 맑스주의와 불교

▶**지혜경 교수**는 이화여대 사학과와 연세대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가상현실 시대에 불교는 어떻게 응답해야할까', '철학상담방법론으로서의 선불교 수사학' 등이 있으며, 저서로 〈근대불교인물열전(공저)〉, 〈철학 중독을 이야기하다 (공저)〉 등이 있다. 현재 연세대 철학연구소 전문연구원, 경희대 강의교수, 희망철학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 중이다.



"중생 고통서 해방"…붓다·맑스가 그린 정토 세상

"맑스주의와 불교는 동일한 과업을 서로 다른 수준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

이 인용문은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가 그의 역작 〈슬픈열대〉에서 했던 말이다. 한때 맑스의 서적이 국가의 금서였고, 공산주의 국가와 적대적 관계를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이 말은 매우 낯설게 들릴 수 있다. 혁명과 투쟁을 이야기하는 맑스주의가 어떻게 비폭력을 이야기하는 불교와 동일한 과업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

맑스주의가 공산주의의 이론적 토대이기는 하지만, 맑스주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러시아, 중국의 공산주의와는 차이가 있음은 주의해야한다.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이 화엄이나 선의 가르침과 완전히 똑같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맑스주의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의 철학으로 맑스주의를 바라보면 의외로 불교와 만나 함께할 수 있는 지점들이 보인다.

자유와 해방을 위한 철학

맑스주의와 불교의 공통점은 둘 다 인간의 실존적 삶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을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불교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태어나면서 겪게 되는 늙고, 병들고, 죽음 등의 실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맑스주의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가?

맑스가 살던 산업혁명의 시기는 기술의 발달로 농업에서는 생산력이 증대하였고, 다른 산업에서는 대량생산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양하고 풍요로웠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이전보다 힘들고 고달팠다. 분명 중세시대의 농노시절보다는 자유로워졌는데, 노동자가 노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삶은 더 나빠졌다. 맑스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행한 상황을 '소외'라고 불렀으며, 이 소외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모색하였다.

'소외'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배제나 따돌림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 철학에서 의미하는 소외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투영하여 만든 생산물과 분리되어, 그 생산물로부터 억압당하고 통제받는 것을 말한다. 소외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낯설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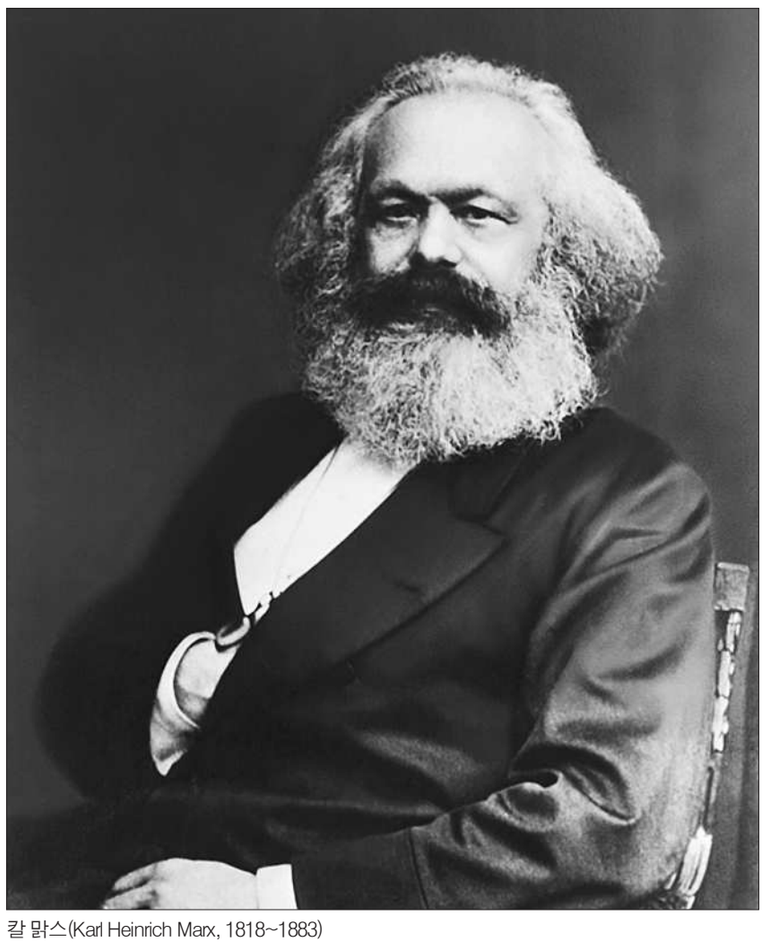
맑스의 소외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친 포이어바흐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소외의 원인을 신에게서 찾았다. 즉, 인간이 신이라는 관념을 만들어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인간의 이상적 본질들인 지혜, 사랑, 박애 같은 것을 신에게 부여하면서, 신은 위대한 존재로, 인간 스스로는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 결과 인간은 신의 지배를 받으며, 자신의 본질로부터는 소외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맑스는 인간소외의 문제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으로 보았다. 잘 알려진 바대로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제도는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인간의 본질을 지혜나 자비 같은 추상적인 덕목이 아니라 노동으로 보았다. 그에게 노동이란 인간을 인간답고 자유롭게 살게 한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신을 계발하고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생산물들 또한 원래는 인간의 본질이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만든 것이므로, 내 소유물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자본주의 구조에서 나의 생산물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노동자가 이처럼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썼기 때문이다. 이로써 생산물이 자본가의 소유물이 되었고, 여기에서 소외의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자가 생산물로부터 소외된 상황은 거기에

삶의 고통서 해방, 불교·맑시즘 지향점
자본주의 고도화 노동자 '소외'로 이어져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인간 소외'서 해방
맑스 주장, 現자본주의 사회 직시에 필요
불교와 맑스 상호 분석, 중생苦 해결 도움



칼 맑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

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진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자본가에게 팔아서 자본가의 통제를 받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노동자는 더 이상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인간 본질로부터도 소외된다. 생산물, 노동, 인간본질로부터의 소외는 인간이 서로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보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소외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개개인은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억압받고, 통제되는 비극적 고통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맑스는 이 소외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한다.

이처럼 불교와 맑스는 인간이 처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방이 시대나 사회경제체제의 제약을 초월하여 인간의 실존적 굴레를 벗어나는 해방이라면, 맑스가 이야기하는 해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조건 지어진 상황에서의 해방이라는 차이가 있다.

변화하는 자아와 탐욕

둘 다 해방과 자유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불교와 맑스주의가 진단한 삶의 고통의 원인은 유사한 듯 다르다. 1차적으로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탐욕과 이기주의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서 괴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불교는 삶의 고통의 원인을 인간자신과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찾으며, 맑스주의는 인간을 둘러싼 외적 조건인 사회구조에서 찾는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애착으로 보았다. 원래 존재에는 불변의 자아라는 것이 없으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인간은 불변의 자아가 있고, 영원할 것이라 믿기에 변화 속에 흘려보내야할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유지시키고 있다. 다른 철학들과 다르게 불교는 이 문제를 바로 지적하며 인간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쪼개어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다섯 가지 요소는 물질적 부분(색)과 감수작용(수), 인지작용(상), 의지작용(행), 분별하고 기억하는 작용(식)으로, 이 요소들이 순간순간의 결합하며 '나'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요소들의 결합을 변하지 않는 '나'로 보는 것이 왜 삶을 힘들게 할까? 흘러가야할 상처와 감정들을 나의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되새김질하게 한다. 나를 안락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으로 이것저것 끊임없이 소유하고자 하며, 소유하지 못할 경우 좌절감을 심어준다. 나아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죽음의 순간에 대한 두려움을 외면하면서도 언제나 마음 한 켠에 가지고 있게 된다. 그렇게 삶의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게 된다.

불교와 다르게, 맑스주의는 인간 삶의 고통의 원인을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닌 외부의 경제구조에서 찾았다. 인간은 스스로 이해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힘인 생산력에 종속되어 살고 있다. 생산력이란 생산수단과 생산수단을 작동시키는 이의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돌절구로 농작물을 가공할 때, 돌절구와 돌절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합하여 생산력이라고 부른다. 생산력에 따라 생산관계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사회구조가 형성된다. 생산력이 달라지면, 생산관계가 변화하고 사회구조 또한 변화하게 된다.

근대 이전에는 생산력이 높지 않았고, 생산력에서 인간의 노동의 기여도가 컸기에 소외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잉여생산물이 발생하였고, 잉여생산물에 대한 권한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자본가(유산계급)에게 주어지면서 노동자들(무산계급)은 자신의 생산물과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예를 들어, 수작업을 통해 1시간에 한 벌의 옷을 만들던 것을, 공장의 기계를 통해 1시간에 3벌의 옷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노동자가 소외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자가 세벌의 옷을 만들지, 한 벌만 만들고 쉴지에 대한 선택권이 노동자에게 주어지고, 추가로 만들어진 두벌의 옷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가 노동자에게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는 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의 선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만들어진 두벌의 옷에 대한 소유권도 전적으로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자본가에게만 있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구조에서 자본가는 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여 수익을 올릴 것에만 치중하게 된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동자의 노동력을 더 착취하게 되고, 노동자는 더 소외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근대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간이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만들게 되었지만,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어 자본가든, 노동자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여 자신의 존재로부터 소외된 상태가 되었다.

인간해방을 위하여

인간 존재의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불교와 맑스주의는 그 해결방식도 다르다.

불교는 괴로움의 원인을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애착으로 보았기에 개인의 인식의 변화를 강조한다. 붓다는 팔정도를 제시하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바르게 집중하며, 쉬지 않고 열심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맑스주의는 외부의 사회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았고, 외부의 사회구조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보았기에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그가 보기에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사적소유와 사적생산수단으로 인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적소유를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구조로 변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의 혁명, 또는 개혁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맑스의 방식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구조의 변화만으로 인간 욕망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방법들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그의 분석은 여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직시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맑스주의에 비해 불교의 해방은 보편적이기는 하나 시의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기에 맑스주의와 불교의 분석과 제안을 서로 보완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길을 잃은 것이 미혹이다

〈迷惑〉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⑲ 착각

〈원문〉 부루나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약에 이 미묘한 깨달음의 본래 묘하고 밝음이 여래의 마음과 똑같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데 까닭 없이, 홀연히 산하대지의 모든 유위(有爲)의 모습이 생겼다면 여래는 지금 미묘하고 공한 밝은 깨달음(妙空明覺)을 얻었사오니 산하대지 유위의 습루(習漏)가 언제 다시 생기게 됩니까?"

부처님이 부루나에게 말했다.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이 방향을 착각하여 남쪽을 북쪽이라 한다면 이 착각이 착각을 인하여 있는 것인가. 착각하지 않음을 인하여 있는 것인가?"

부루나가 말했다.

"이 착각한 사람은 착각을 원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착각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착각은 근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착각을 원인으로 했다 하며, 착각하지 않으면 착각이 생기지 않거늘 어떻게 착각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했다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다시 부루나에게 착각은 근본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강해〉 깨달음(悟)과 미혹(迷)의 관계를 두고 말할 때 중생이 본래 부처였다면 왜 중생으로 전락되었느냐는 문제와 부처도 그러면 중생이 될 때가 오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청정본연(淸淨本然)한 데서 산하대지 유위상(有爲相)이 생기게 되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부루나가 생각해 보니 깨달음의 세계가 미혹의 세계로 바뀌진 것이 산하대지 유위상이다. 그렇다면 부처님도 다시 유루습기(有漏習氣)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 물었다. 깨달은 부처님이 다시 미혹한 중생이 되는 수가 있느냐는 말이다. 〈원각경〉 '금강장보살장'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온다. 여기에 대한 답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착각하여 남쪽을 북쪽인 줄 알았다. 이것이 미혹(迷惑)이다. 길 잃은 아이를 미아(迷兒)라고 하듯이 원래 미(迷)란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중생이 생사의 윤회를 거듭하는 것도 고향을 잃고 헤매는 미아의 신세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째서 남쪽을 북쪽이라 여겼는가? 이것은 그야말로 느닷없는 착각일 뿐이다. 미(迷)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말해 놓고 있다. 물론 정방(正方)이 있기 때문에 착각한 것이지만 착각 그 자체는 홀연히 잘못 생각한 착각일 뿐 착각할 원인이 본래 있어 이것을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착각하지 않은 상태가 착각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착각의 근본이 없다는 것이다. 본래 미(迷)한 것은 없는 것인데 미혹하지 않았던 사람이 홀연히 미혹해졌을 뿐이다. 여기서 방향을 바로 아는 것은 오(悟)고 방향을 착각한 것은 미(迷)인데 미(迷)가 미(迷)에서 생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悟)에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대목의 결론이다. 또 착각하여 남쪽을 북쪽이라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남쪽이 북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비록 착각했지만 착각(迷) 자체가 공(空)한 것이다. 착각(迷)하고 있다가 누군가 정방(正方)을 바로 일러주어 착각을 벗어나면 이미 미(迷)가 아닌 오(悟)인 것이다.

정각을 이룬 부처님이 더 이상 미혹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설한 대목이 있다. 그 하나는 나무가 타서 숯이나 재가 되면 그 숯이나 재가 다시 타지 않은 나무로 돌아갈 수가 없고 또 광석에서 추출된 순금이 순금이 된 후에는 광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였다. 경문에서는 또 "미(迷)을 깨달아 미(迷) 없어지면 각(覺)에서는 미(迷)가 생기지 않는다(覺迷迷滅 覺不生迷)"고 하였다. 비록 중생의 번뇌가 미혹이기는 하지만 중생 자체는 번뇌가 있건 없건 각(覺)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다만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행의 지위가 구분되어 지위점차(地位漸次)가 있는 것이지만 보리 그 자체에서는 지위점차도 없는 것이다. 본래의 깨달음은 본각(本覺)이고 수행을 통해 얻는 깨달음의 접근성을 구분하여 시각(始覺)이라 하며 이 시각에 범부각(凡夫覺)이 있고 상사각(相似覺), 수분각(隨分覺),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구경각(究竟覺)이 있다고 구분해 말하기도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본성으로 황정 비춰 모든 경계 수용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⑲ 황정의 형성

기운이 미세하고 부드럽게 순화되어야 내단전이 감지된다. 내단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호흡도 미세해져야 한다. 숨을 멈춘 것처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미세해져야 한다.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없으면 기운의 순화가 덜 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주천(周天)을 반복해주어야 한다. 감지될 때까지 반복한다. 이때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은 신장의 선천기와 한 물건이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신장의 선천기를 신화(腎火)라 한다. 한 물건이 하단전과 명문 사이를 오고 가다 보면 신장이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신장에 내장되어 있던 선천혼이 깨어난다. 신화는 신장의 선천혼이 생성해 내는 선천기이다.

하단전에서 배양된 한 물건은 명문의 선천원기와 후천기, 밝은 성품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그 한 물건이 진화해서 나중에 양신(陽身)으로 변화된다. 비상비비상처정을 이루는 목적 중의 한 가지가 양신배양이다. 한 물건이 양신으로 진화되려면 육장의 선천기를 얻어야 한다. 그 시작이 신화를 얻는 것이다. 내단전은 신화와 한 물건이 합쳐지는 자리이다. 신화와 한 물건이 합쳐지면 네 종류 에너지가 합쳐진 것이다. 채약을 이루게 되면 다섯 가지 에너지가 합쳐지게 된다. 순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한 물건이 내단전에 안착되면 속이 메슥거린다. 그런 경우에도 반신 소주천을 반복해 주어야 한다. 계속되는 주천은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이 과정에서는 '옴' 자 발성을 하지 않는다. 호흡의 감각만으로 반신 소주천을 행한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단전에 깃든 한 물건을 주시한다. 숨을 내쉬면서 한 물건을 명문으로 밀어낸다. 명문에 한 물건이 맺히면 다시 중심으로 이동시킨다. 숨을 들이쉴 때, 명문을 주시한다. 이때 후천기는 섭취하지 않는다. 숨을 내쉬면서, 중심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다. 명문의 한 물건이 영대를 통해 중심으로 끌려온다. 영대를 주시하며 숨을 들이쉰다. 중심의 한 물건을 갈비뼈를 타고 영대로 이동시킨다. 숨을 내쉬면서 중심과 영대를 함께 주시한다. 영대의 한 물건이 중심으로 이동해 온다. 가슴바탕이 텅 비워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들숨에 영대를 인식하고 날숨에 중심, 하단전, 내단전 경로를 인식한다.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그대로 내단전에 안착시킨다. 순화되지 않은 한 물건이 내단전에 내장되면 주변 장부의 고유성이 훼손된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업식들이 깨어난다. 내단전에 한 물건을 내장시키면, 공부의 성취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이때를 일러서 황정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황정이 형성되면 저절로 살갗 호흡이 일어나고 몸 전체로 후천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훈훈한 열기와 함께 백회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감싸는 기운의 막이 형성된다. 몸의 다른 부위들은 텅 비워진다. 무념 · 무심은 투철해져서 바늘 끝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튼튼해진다. 감정이나 분별이 일어나도 그대로 내단전에 흡수되어 버린다.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즉시에 제도된다. 비로소 흐트러짐이 없는 안정을 얻게 된다. 여기까지가 반신 소주천의 완성이다.

이 상태에서 꼬리뼈 순화를 행한다. 황정이 형성되면 '마음 달이 떠올랐다'라고 말한다. 이때는 황정을 정(定)의 주체로 삼는다. 지극하게 본성으로 황정을 비춰보면서 모든 경계를 그 자리에 집어넣는다. 아기를 밴 듯, 알을 품은 듯, 황정의 기운을 본성으로 비춰준다.

이때가 되면 꼬리뼈에서 진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엄청난 냉기가 뿜어져 나온다. 고관절이 벌어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 얼음 같은 냉기가 발바닥으로 빠져나가면서 용천혈 부위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그러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⑲ 일체가 무생(無生)

본래 제도할 중생은 없다

부처님의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적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는데,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유추하여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진리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진리는 물질의 현상계에서 나타난 적이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이 부분을 뒤집어볼 수 있다면 모든 경계가 확연하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막히게 되면 미진함에 계속 갇히게 된다. 이 부분을 듣고 오온에 대한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진리를 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 라고 알고 있는 자의 혀가 끊어지는 자리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듣고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모르면 그것에 의문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문을 던져보는 것인 줄 모른다. 이때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할까? 아마도 그는 살아온 세월 동안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듣기만 하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진리를 바로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물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만, 교만, 자만심의 작용으로 오온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오온에 대한 어리석음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된다면 진리를 의심하는 자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는 안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에 '왜?'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없다. 오온이 의문을 가지더라도 스스로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다. 그렇다고 오온을 설득하지도 않는다. 이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본래의 자리에서 오온이 그것에 대해 조용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 여기에서 사용한 '본래의 자리' 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하면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을 제외한 자리로 알아야 한다. 이러한 단순함을 오온이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는 이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항상 모양에 따라 그 대상에 맞는 이름을 찾아 사용하면서 생활한다. 여기에서 대혜대사가 중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대혜대사가 사용한 중생이 어떤 중생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그저 대혜대사 자신이 평상시에 마음에 품고 있는 중생일 것이다. 그러니 대혜대사 입장에서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중생은 제도를 해야 하는 중생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혜대사 마음에 있는 중생이지, 밖으로 드러난 중생은 아니다. 그러니 대혜대사가 말한 중생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은 완전 다른 것이다.

"일체가 모두 무생이요 또 인연으로써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이 생멸 속에서 인연의 상이 일어나도다."

부처님께서 지칭한 중생은 모양은 있지만 제도해야 하는 주체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양이 있으면 주체가 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모양과 주체를 동일한 대상으로 인지하므로 제도해야 하는 대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언어로는 같은 중생을 말하면서 보는 곳은 다른 것이 되고 만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양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정작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양을 바르게 안다는 것을 착각하여 세밀하게 보려고 관찰하는 것에 몰두한다. 사실 바르게 안다는 것은 단순하다. 모양은 항상 변하고 있다. 이것이 모양에 대해 관찰이 끝난 상태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새기는 것이다.

모양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나면 변하는 것은 고정된 상이 없음을 알게 된다. 고정된 상이 없다는 것은 그 모양에 주체가 존재할 수 없음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확! 변해버린 스님의

염불소리에 스님 염불이다! 아니다! 테프 소리다! 공양간의 보살들이 법당으로 확인 차 몰려오는 소동을 20년 2천여 사찰의법당 시설중 수 도 없이 겪었던 경험!

오직!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전화하시면 반드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에 소리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지는 이유..... 내 귀에 수 천번 반복되는 내 염불소리가 장엄 신명 힐링으로 보물이 따로 없지만 계산법이 몹시도 어둡고 수준급 보살들의 소리수준을 전혀 모르는스님들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신속하게 사라질수 밖에 없음!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본 품은 TV 및 세미나에 다수 출연한 명품소리 훈련 베테랑 강사가 오랜 경험 끝에 염불, 법문전문용으로 특수제작한 시스템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및 핀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충전식 각종 방생용 전문판매, 시설가격 190~사찰 규모따라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36호 | 17 | 전면광고

나 여래는 오직 길을 가리킬 뿐이니
그 길을 따라가고 가지 않는 것을
나인들 어찌하겠는가.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2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 가능 • 매가 : 15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포교원(급) 안내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층에 2층, 40평
- 인근 상권 주거 및 재래시장 밀집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5만원 (관리비 없음)
- 시설비 : 1,300만원

010-5635-6199

사 찰 안 내

사찰로 사용 적합

- 경북 영천IC 1분 거리 대도로 분 부지 1,000평
- 건물 140평 정남향
- 불교요양원, 포교당, 사찰운영
- 가액 30억

010-3540-0196

사 찰 안 내

강서구 방화동 상가 3층 32평

- 법당 넓은평 : 방2, 주방1, 화장실 복도 2칸 단독 사용, 창고방1
- 2000/65만원
- 엘리베이터, 주차 無(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음)
- 주변에 대형마트, 음식점, 재래시장 있음 부처님 외 인등, 북 등 전체 보시
- 시설비만 2,000만원(비품 모두 새것) 몸만 오시면 됩니다.바로 기도 수행 할 수 있음

010-6613-2265

사 찰 안 내

- 건물, 토지 지주 승락시 지번공가능, 상담 후
- 위치 : 경기권, 경북권, 충북권, 충남권, 강원권
- 소 · 대형 사찰 인수하실 분 단체나 법인, 개인 매수인 직접시 직거래 가능
- 소형 2,000만원부터 100억대 사찰 또는 소형 / 나는 자연인이다 정도의 오지 터 〈직거래 가능〉
- 공시지가 이하 소형임야 또는 대형임야 사찰 부지 1. 계약금 걸고 대형사찰 잔금 대출금으로 양도 가능

(도암)010-3184-5362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1천 6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농막·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 평수 : 1898㎡당. (574)평
- 용도 : 토굴, 주말농장
- 보전관리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곳, 도로, 골짜기, 전기접
- 가액 : 3,600만원

010-5454-766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 버스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도시가스, 유동인구 많음

010-3402-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대웅전(53평)
- 부속 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957-8089

암자 안내(월세)

- 경남 진주시 정촌면(아울렛 옆)
- 500/40(월세), 권리금은 협의.
- 시내와 IC 모두 5분 거리
- 150평(마당 110평, 건평 40평) 마당 수리함, 주차 3대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646-3385

김해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구산동 시영 아파트 상가 3층, 301호
- 3층 크기 약 60평
- 매매금 : 2억 8천만원 (시설 포함, 융자 1억 포함)

010-3485-4952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보살님과 법사님도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344-666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 대지 : 약 250평 법당, 요사채, 주차장 70평
- 공찰소임 관계로 급매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054-536-2587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암자터, 명당안내

- 암자, 명상원, 산속찻집, 문화원으로 적합함
- 위치 : 지리산 하동 악양면
- 청학골 전설의 두계곡 물이 합수하여 정원수가 됨(해발 200여m) 100여m 청석 반석으로 물이 감아 흐름
- 482평, 평당 25만원

010-8637-3872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포교원 안내(40년)

- 위치 : 수영 R-Y 부근, 2층 40평
- 법당 : 아미타, 관세음, 지장, 신중, 영단, 소불 200불
- 전세 : 2천/35만원, 사권 2300만원

주지 소임 관계로 급, 즉시 법회 가능

010-9695-1060
051-727-2421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
- 유명한 산 칠부능선, 암반에서 1급수 약수가 365일 사시사철 흐르고, 앞에 큰 계곡물이 흐름, 금강 발원지
- 가옥 : 25평, 40평(2채)
- 평수 : 8000평에 밤나무와 과실수 현재 수확 중
- 가액 : 24억(몸만 오시면 됩니다.)
- 터를 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010-5343-6711

파주 금당사 안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4727-6065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선불사
- 주 지 : 대운 스님(속명:김경환)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402번지 (매홀로 77번길 38)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대승불교본원종



참회진언 타올

40×80cm / 160g / 30수 / 6,000원

세수면진언 타올,
절방석을 덮는 참회진언大타올도 있습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 043) 644-1102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36호 | 18 | 전면광고

여러 강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 짠맛이 되듯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쌓은 보살의 선행도 중생의 깨달음에 회향 되면 해탈의 한 맛이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적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범음·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초파일 불공 집전해 주실 스님 구합니다.

(포항)

010-2811-0118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⑨ 견성성불(見性成佛)



내 마음 들여다보는 시간

맑고 푸른 5월의 하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태동 그리고 푸르름, 꽃들의 합창, 이 모두가 희망이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일까?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며 밝히는 수많은 등들 그리고 탑들 속에 피어나는 감사함과 고마움 그리고 그 크신 자비광명. 감사하여 내 마음속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나도 부처와 같은 성품을 볼 수 있을까?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중생의 성품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성품이라고 한다. 어떤 책을 보니 "마음을 닦아라"고 한다.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부처가 된다고 한다.

번뇌망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우리의 지혜가 바르게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공부하다보면 그 크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풍덩 빠지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모두에게 감사하며 나를 만나는 모두에게 부처님 법 전하는 것도 부처가 되는 길 아닐까? 5월은 시간, 여유, 한가한 시간, 다 버리고 가까운 산사 찾아가 내 마음 내려놓고 자비광명하신 부처님 전에 내 마음 한 번 보태어 보시면 어떨지요. 나무석가모니불.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㉜ 이애리의 '낙산사 홍련암'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낙산사 홍련암/ 이애리

한계령 단풍같이 고운 사람과
낙산사 홍련암 대숲 소리 들으러 간다

정암해변 조약돌이 동그마니 따라오며
홍련암 바람소리를 듣느라 여념이 없다

대숲의 바람을 그대 가슴으로 전해 들으니
살랑 사랑 바닷바람 사랑 살랑 산들바람

절에서 준비한 팥시루떡을 서로 입에 넣어주며
한계령 단풍 속으로 숨어들었다

– 이애리 시집, 〈동해 소금길〉 시로 여는 세상, 2019

이애리 시인에게 "한계령 단풍같이 고운 사람"은 누굴까. 누구이기에 함께 "낙산사 홍련암 대숲 소리를 (함께) 들으러" 갈까. (그이는 참, 복도 많겠다.) 그래, 낙산사 홍련암으로 가는 길엔 대숲이 무성했지. 무성한 대숲길이었지. 하지만, 그 대숲엔 무서운 비밀도 숨어 있었지. 최신식 총과 수류탄과 대검을 찬 무장 군인들이 대숲 깊숙이 은밀히 세워진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거든. 그냥 대숲길의 무성함만 보고 그 대숲 바람 소리와 만파(萬波)에만 취해 가면, 그 아픈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지. 그 대숲 속 초소에 서서 밤낮으로 동해안을 경계하는 군인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들의 마음에도 만파의 파도소리가 기쁘게 들려올까. 아침 수평선으로 떠오르는 일출이 멋과 낭만으로 느껴질까.

그런데 이애리 시인은 시침을 뚝 떼고 "정암해변 조약돌이 동그마니 따라오며" "홍련암 바람 소리를 듣느라 여념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대숲의 바람을 그대 가슴으로 전해 듣는다"고 한다. "정암해변 조약돌"이 "그대"임은 분명해졌다. 이 시를 쓰기 이전에, 아니 홍련암에 가기 이전에 시인은 틀림없이 "정암해변"에서 (알 수 없는) 그대와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럼, 정암해변은 어디 있을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정암해수욕장 주변이리라.(정암해수욕장일 수도 있고.) 시인은 거기서 누군가와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 조약돌밭을 걸으며 누군가와 어떤 약속도 하고 앞날을 얘기하고 문학을 얘기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때 "그대 가슴으로" 지금 시인은 홍련암 가는 길에 있는 무성한 "대숲의 바람을 전해"듣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행이 멋들어진다. "살랑 사랑 바닷바람"이고 "사랑 살랑 산들바람"이다. 여기서 뒤바뀌어 반복되는 "살랑 사랑"과 "사랑 살랑"이 문제다. 사랑은 그야말로 남녀 간의 사랑이다. 문제는 '살랑'이다. 살랑의 사전적 정의는 '조금 사늘한 바람이 가볍게 부는 모양'이다. 물론, '사랑'에 'ㄹ'자 받침 하나 덧붙이면 '살랑'이 되고, '살랑'에서 'ㄹ'자 받침 하나 빼면 '사랑'이다. 시인은 발음이 비슷한 살랑과 사랑을 뒤바꿔 두 번 반복하면서 언어미학의 맛과 멋을 살렸다. 또한 '바닷바람'은 '살랑 사랑' 불고 '산들바람'은 '사랑 살랑'으로 분다고 묘사했다. 시인에게 홍련암 가는 길의 바닷바람은 (시원하고 가볍게 부는 바람) 산들바람이고 사랑바람이다. 그리고 (감히 단언컨대) 세상과 시인 자신을 스스로 애무하고, 세상과 시인 자신이 스스럼없이 사랑을 나누는 중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랑'과 '사랑'은 동격이다.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파토스적 에로(erotic)다. 그것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강릉과 동해바다와 강원도에 대한 향토적 에로이기도 하다. 시인은 지금 '동해 소금길'(이 시집 제목이기도 함)과 열렬히 연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역신(疫神)을 쫓아내기 위해 동지팥죽을 먹는 것처럼, "절에서 준비한 '팥시루떡'을 서로 입에 넣어주며" 영원히 변함없고 병들지 않는 사랑을 약속한다. 그리고 "한계령 단풍"이 되어 "한계령 단풍 속으로 숨어"든다. '한계령 단풍 속'은 시인과 그 애인의 안식처이자 사랑의 보금자리인 것이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한계령 단풍같이 고운 사람"의 '사람'과 "정암해변 조약돌이 동그마니 따라오며"의 '정암해변 조약돌'과 "대숲의 바람을 그대 가슴으로 전해 들으니"의 '그대'와 "절에서 준비한 팥시루떡을 서로 입에 넣어주며"의 '서로'를 파랑새(관세음보살)로 환치해 읽으면 어떨까. 파랑새(관세음보살)는 홍련암의 창건 설화에 나오는 새이기 때문이다. 설화에 의하면 홍련함은 의상 대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낙산 해변 굴 안에 관세음보살이 머무신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참배했는데,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석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자 굴 앞에서 밤낮으로 7일 동안 기도를 하자 바다 위에 홍련이 피오 올라 그곳에 암자를 짓고 홍련암이라고 했다고 한다. 다른 설화에는 의상 대사가 붉은 연꽃 위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뒤, 대나무가 솟은 자리에 홍련암을 지었다고도 한다.

어떻든 시인의 그 '곱'고, '동그맣'고, '살랑 사랑'스러운 사람은 파랑새이고 관세음보살이고 애인이고 시인 자신이다. 그리하여 "한계령 단풍 속으로" 숨어들어 역신을 쫓아내고, 거기서 한 세상 잘 보내려고 한다.

홍련(紅蓮)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을 상징한다. 그러나 필자의 천재적 불온성은 그 관세음보살(파랑새) 대신에 조선시대 가산(嘉山) 최고의 기생이었던 '홍련(紅蓮)'을 먼저 떠올린 것이다. 평양의 계월향(桂月香), 진주의 논개(論介)와 함께 조선 삼대 의기(義妓)로 유명했던 가산 기생 홍련. 그때 그녀는 자신의 기명(妓名)이 관세음보살님(파랑새)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의기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 홍련 탓인지, 이 홍련 탓인지, 대숲길을 따라 난간 길을 따라 홍련암으로 가는 길이 낙원 길 같기도 하고, 가야금 소리와 창소리 흥건한 요정 길 같기도 하다.

일출 직전, 그때 오렌지 빛으로 서서히 물드는 여명의 바다는 아름답다 못해 참으로 고혹적이다. 차라리 슬프도록 아름다운 그 고혹은 홍련암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새벽 홍련암에 드니 침묵의 기도소리가 낭자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지일체법(나무대비관세음 일체법을 알려 하니)/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지혜안(나무대비관세음 지혜 눈을 얻게 되고)/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도일체중(나무대비관세음 일체중생 건져내는)/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선방편(나무대비관세음 좋은 방편 얻게 되며)….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버스 교통사고로
신장 한 쪽과 간 절반 잃어

베트남 유학생 응예틴찐씨, 장기 파열 · 근육 괴사
3차례 대수술에도 생사 불분명…병원비도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⑧ 올바른 마음공부의 길

▶ 한줄 요약
입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칭명염불(稱名念佛)'에는 수행자의 마음이 정화되고 깊어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처님을 만나보는 삼매의 세계에 도달하는 힘이 있다.

염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수행법



염불(念佛)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한다는 뜻이다. 항상 부처님의 세계를 잊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염불이다. 입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칭명염불(稱名念佛)' 에는 수행자의 마음이 정화되고 깊어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처님을 만나보는 삼매의 세계에 도달하는 힘이 있다. 그리하여 정토왕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오로지 일념정신으로 매달리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대상을 관하여 그것과 내가 둘이 아닌 속에서 그 대상을 관하는 명상이 곧 밀교에서 말하는 '입아아입관(入我我入觀)' 이라 하는 것이다. 그 수행법은 조급해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고요히 정념으로 자기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30만 번을 염불 · 염송 함으로써 외우면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했다. 밀교의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 은 자기의 마음을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자기와 본존(本尊)을 합일하는 금강승(金剛乘) 밀교의 중심 사상이다. 자기 속에서 자성이 청정하고 빛나는 광명을 찾아내서, 인간 존재 속에 있는 여래의 본성을 알기 위한 다섯 단계의 관법이다. 먼저 본심을 통찰하고, 보리심을 닦고 나아가서 금강심(金剛心)을 증득하고 마지막으로 부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염불은 부처를 자기 밖에 상정하여 구하는 것이다. 극락세계를 자기 밖에서 찾는 것이다. 그러나 자성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본질이 부처이고 극락세계임을 안다. 염불은 곧 염심(念心)이고, 이 불심은 무상으로 형상이 없다고 했다. 본래 분별과 염을 떠나 있는 자성의 성품이 불심이니 이를 잘 알아서 그 뜻이 뚜렷이 이어지고 구현되는 행을 염불이라 말한다. 이렇게 이어져 가면 상이 끊어져 평등 무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관찰하던 마음도 사라져 그러한 관행에 의거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바로 진여법신(眞如法身)이라 한다.

흔히 말하는 방편염불과는 달리, 참다운 염불은 바로 염불선이다.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요, 동시에 우주가 바로 부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염불선이라 할 수 있는 행이 되려면 달마대사의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입(移入) 되어야 한다. 불심이 곧 이입인 까닭이다. 자기의 마음속에 항상 불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염불과 염불선을 굳이 구분하여 말한다면,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성불(自性佛)을 깨달아 알았다면 자연히 염불선이 되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염불이라 할 것이다. 염불선으로 나아가는 길은 경론의 심의를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알아 깨닫거나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길 등이 있다.

심성이 본래 사유(思惟)함도 없고, 견(見)함도 없고, 지(知)함도 없음을 뚜렷이 알아야 그 심성에 자연히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 되어야 억지 수행을 떠나 원만한 행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저절로 원만한 수행이 자연스레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본래의 심성을 알지 못하면 억지 수행을 이어갈 뿐이다. 자심의 청정한 성품이 곧 그대로 불심임을 알게 하는 것이 염불선법이다.

불교의 선정은 지(止)와 관(觀)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도달한다. 요컨대 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떤 대상에 매이지 않게 하여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되는 마음의 수행인 것이다. 부처님이 설했던 선은 계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고요한 곳에 단정히 앉아서 호흡을 조절하고, 여러 감각기관을 억제하고, 생각을 가다듬는 것이다. 이것은 요가에서처럼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가다듬고 조절하는 것이다.

> **염불 곧 '念心', 이 불심은 무상해 형상 없어**
> **분별과 염을 떠나 있는 자성 성품이 불심이니**
> **이를 잘 알아 이어지고 구현되는 행이 '염불'**
> **방편염불과는 달리, 참다운 염불은 염불선이다**
> **자기마음이, 우주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멸진정이란, 우리 마음의 주체와 객체를 모두 멸한 것이다. 마음의식의 주체와 객체의 움직임이 멸했으므로 마음의 고요함이 마치 열반에 들어간 것과 같다.

부처님이 스스로 명상을 통하여 얻은 이러한 진리를 인류사회에서 살리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이러한 진리를 터득하여 개척해가는 적극적인 실행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고요와 지혜를 같이 닦는 것이 특징이다. 사물의 진실을 바로 알기 위해 지의 수행을 닦아가면서 그로부터 다시 사물을 대하면서 그 사물을 비추어 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 안회가 스승에게 "마음을 한결같이 고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스승 공자가 답하기를, "만약 뜻을 한결같게 가지려면, 귀로써 듣지 않고 마음으로써 들으며, 마음으로써 듣지 않고 기(氣)로써 들으며, 듣는 것이 귀에서 그치며, 마음이 신령에서 그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라는 것은 텅 빈 것이나 모든 사물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오직 모인 기를 텅 비우는 것이 도이니, 비우는 것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라고 했다. 텅 빈 상태, 이것은 본래의 상태이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자연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정신의 집중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이루어지며, 텅 빈 것 같이 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도(道)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요가의 삼매의 세계와 같은 것이지 불교의 적정의 세계는 아니다.

맹자도 "기를 길러 해침이 없게 한다"고 했다. 이것도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라는 가르침이다. 노자도 "면면히 이어져서 이것을 애써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연스러운 호흡을 권했다.

장자는 "진인(眞人)은 숨을 발꿈치로 행한다. 뭇사람은 목으로 행한다"고 했다. 장자가 말한 것은 깊은 호흡이다. 몸이 약한 사람은 얕은 호흡을 하므로 얕은 호흡이라 했다.

중국의 명의 화타도 "호흡하여 이것을 이끌어 옛것은 토하고 새것은 들어오게 하면 오래 산다"고 했다. 인도의 요가에서는 정신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기공법(氣功法)에서는 육체적인 면에 많이 치중한다.

공자 하면 흔히 인과 덕을 떠올리고, 붓다 하면 법과 자비를 떠올린다. 이 덕목들은 공자와 붓다의 최상의 덕목들이다. 이러한 덕목들을 체험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 그것은 노력이다. 오직 노력뿐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불방일(不放逸)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온갖 착한 법 가운데서도 불방일이야말로 최대의 것이고 최상의 것이다.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반드시 거룩한 팔정도를 지키며 그것들을 실행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상응부경전〉)

법을 깨닫고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결과라면, 불방일은 그 과정이다. 과정은 곧 결과이다. 어떤 점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자 역시 도에 접근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자는 항상 제자들에게 스스로가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을 항상 모자라는 자라고 여겼다. 자신을 항상 모자라는 자로 여겨야 계속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공자가 자신을 '노력을 하는 자' 로 규정한 것을 〈논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공자는 후천적인 노력을 자신의 유일한 실체이자 장점으로 꼽았다. 적어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최선의 지자(知者)가 되는 유일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깨끗하고 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천성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기질이란 겉도는 것으로 후천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래의 성품이 순수하고 착한 것이라면 순수한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수양이고 그것을 한결같이 간직한 사람이 군자이다. 이러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인의예지(仁義禮智)' 의 네 가지 덕이다. 이 네 가지의 덕을 가지는 것이 천성을 유지하는 것이요, 이 네 가지를 실천시키는 것이 인생의 이상인 것이다.

남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이 인이요, 서로 존경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이다. 그리고 의와 지는 천성이 그대로 자기에게 나타는 것이다. 인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의는 올바른 것을 찾는 것이요, 예는 남을 앞세우고 사양하는 마음이요, 지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옳은 것을 실천하는 마음이다.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불법(佛法)유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청년 불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청년 포교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방송 (월) 12:00 재방송 (월) 20:30, (토) 19:30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문광스님이 쉽게 해설하는 선문염송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BTN불교TV 최고인기 프로그램!
시대 맞춤형 생활법문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일) 22: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36 호 현대불교
2023년 5월 17일(음 3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내 마음에 불심을 일으키는것이 밝은 인등을 켜는것이다

(지난 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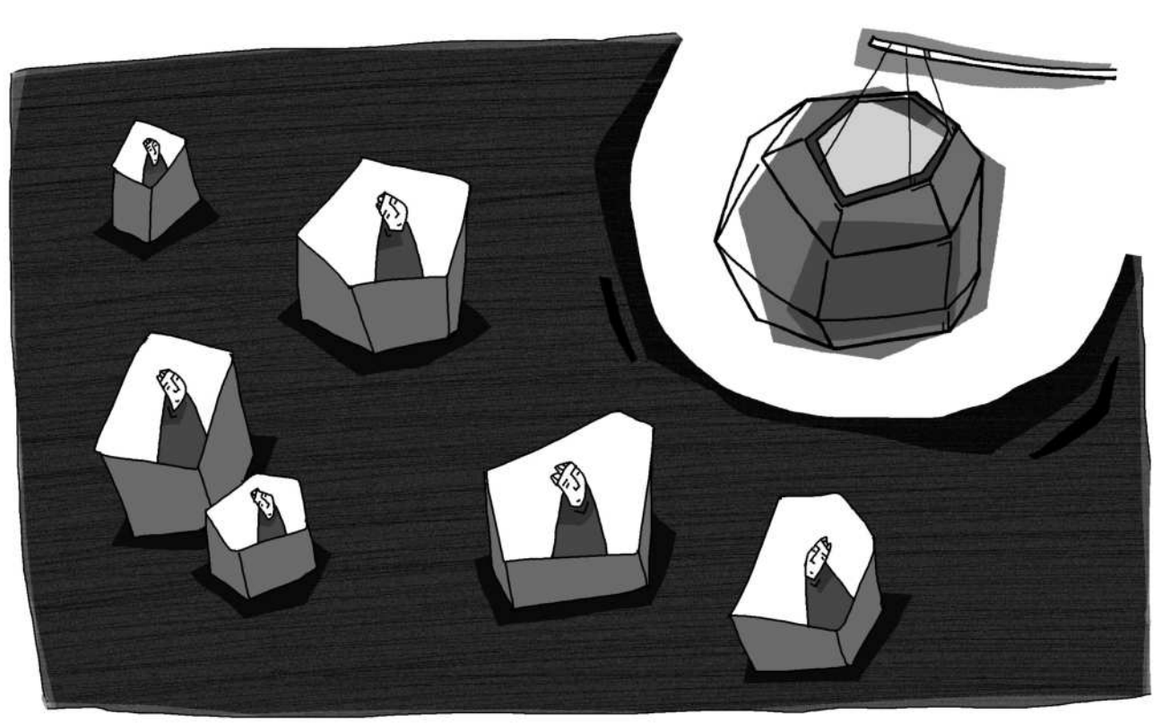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헐뜯으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대가 세대니만큼 그렇게 바쁘게…, 나는 눈물이 찡하게 나곤 하죠. 저기 있는 보살이 선원의 지금 사무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차를 타고요, 머리 빗고요, 빵 한 개 들고요, 그거 마시면서 그 빵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뿐이 아니에요. 이 카세트를 거기 끼고 들으면서, 그러니까 귀도 일을 하고 입도 일을 하고요, 하하하, 아주 전체 몸뚱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뿐 아니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을 볼 때, 참으로 이것은 참선이 딴 데 있는 게 아닌데 이러는구나. 그러면 저런 분은 기독교 믿어도 한 번도 천당에 못 갈 거고 또는 불교 믿어도 승천 못 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백팔 배를 못 하고 그래서 리어카 끌어 먹는 사람은 그럼 승천 못 할 거 아닙니까. 바빠서 절을 못 하니까 말입니다. 하하하.

그러니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이 도리와 더불어 아까 얘기해 드린 거와 모든 것을, 지금 인공위성이 위로 올라가는 시대, 시대를 따라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전자에 말씀해 놓으신 그 뜻이 바로 오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절도 초 초마다 부활절이요, 4월 8일도 일 초 일 초 바로 부처님이 탄생을 하신 날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 부활이고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 일 년에 한 번씩 와서 인등을 켠다고 하는데, 인등은 내 마음을 일으키고 불심을 일으키는 데서 그게 밝은 인등입니다.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느냐 하지마는 마음이 일으켜졌으니까 움죽거려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켜는 겁니다. 그러니 절마다 인등을 켜 놓는다고 그, 뭡니까?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예전에 기름으로 켜던 그런 식으로 된 데다가 요렇게 전깃불 하나 해 놓고, 거기다가 인등 켠다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난 그런 것도 여러분 자신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마음 한 생각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내 한 생각이 우리 식구를 다 살릴 수가 있고, 내 한 생각이 잘못돼서 구덩이에 빠지게끔도 할 수 있고 구덩이에서 꺼낼 수도 있는 그런 자력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고 재료도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남한테 의존하고 맹종하고….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불교는. 기독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상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모르니까 나를 익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절을 시켰고, 또 자기가 자기 나무에서 실과가 무르익어서 아주 갖가지 맛을 내라고 그런 거고, 그 씨가 익으면 내년에 또 심으니까 영원한 자기를 맛보라고 그렇게 절을 시킨 겁니다. 절을 꼭 108배 할 것을, 마음을 둥글려서 일 배를 잘 하신다면 108배 한 거보다도 그 일 배가 더 중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남편은 바빠서 지금 그냥 공당공당 뛰고 나가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돌아서서 자기 할 일만 뭐, 주문을 외운다거나 이런다면 굶주리게 되고 또는 고독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자기도 그렇고 가정이 다 그런 거죠.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도리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 모든 시스템이 돼 있어서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 도리를 아실 거 같으면 어떠한 별성도 바로 나인 것이고, 내가 별성이 될 수도 있고 핼리 혜성도 될 수 있고 또 그 핼리 혜성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또 나를 발견해 가지고 둘이 아닌 도리를 실험하고 체험해서 그 도리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 내가 또 죽어서 서로 같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둘이 아닌 나툼을 나툰다. 네 번째,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산다. 자유인이 된다. 찰나찰나 생활을 그대로 자유스럽게 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생활 속에 바로 부처님이 계시고, 변소에 가도 자기가 변소에 갔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할 것입니다. 불당에만, 법당에만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교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 님이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발견해야 하고 나를 발견한다면, 바로 내 주처를 먼저 알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는 바로 실험과 체험이 들어갑니다. 둘이 아닌 도리. 둘이 아닌 도리를 진짜로 알아야만이 스승도 팔아먹지 않을 거고 뼈다귀도 우려먹지 않을 거고 이름을 팔아먹지도 않을 거고, 또는 거기서부터 둘이 아닌 도리를 행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이 그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함으로써 자식들도 뿌리가 싱싱해지고 병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와 이파리는 아마도 싱싱할 겁니다.

그러니 불법이 어디 따로 국한돼 있는 걸로 알지 마시고, 우리 젊은 사람이나 또는 남녀를 막론해 놓고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 바로 그 생명이 내 생명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고 둘이 아닌 까닭에 둥글려서 일 배를 진실히 진심으로 할 때 바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일심으로 돌아가서, 일체로 돌아가서 일 배가 만 배를 능가할 수도 있는 그런 이치가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말했듯이 "얼마나 공덕이 됩니까?" 하니까 "넌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갖다 준다, 집을 지어 준다 해서 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물 한 컵을 떠 줘도 공덕이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만민이 다 와서 이 공부 하는 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 공부를 하고 가는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그 마음씨가 바로 이다음에 다시 돌아서 나오실 때 무심의 통장으로서 다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 또는 자식들에게 햇빛을 줄 수도 있고 또 부모들한테 묵은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으로 훌륭한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중이 돼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고 사는 회사 회장도 있고 또는 정치가들도 있고 또는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 도리를 잘 알아서 그렇게 태어나서 다시금 그 통장을 쥐고 바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한 그, 지금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을 착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건질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을 안 했으면 일한 대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한 일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도 그렇고 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악도 거기 놓고 선도 놓고 잘한 것도 놓고 못한 것도 놓고 다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자성신, 자기 주처에서는, 바로 자기 님이 자기를 이끌어 갑니다.

내 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마는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 하나도 부처라고 하는 게 없는 것이 부처예요. 부처라고 했다면 벌써 부처가 아닙니다. '큰스님이다' 이런 말도 이름이지 그것은 그 사람이 통달해서 남을 이익하게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한데 떨어뜨리지 않고 실천으로써 그것이 법이 돼야만이 그게 이득이 가고, 여러분이 오면 말없이 왔다가도 충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거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더 앞을 내다보고

☞ 22면으로 계속



초 초마다 부활절이요 부처님오신날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과거는 어저께도 과거고 아까도 과겁니다. 그런데 내다보고 살려면 사는 대로 우리가 도리를 다해야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점점 살아나가면서 내 뿌리를 상실하고, 즉 말하자면 나무로 친다면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뿌리는 뭐, 상실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항상 밝은 거고, 항상 심봉과 같은 거니까요. 맷돌을 돌릴 때에 아래 위를 꿰는 심봉과 같은 것이 바로 불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뭐, 더하고 덜함도 없지마는 우리가 그 심봉이 딱 끼워져야 맷돌이 제대로 돌아가고 맷돌이 제대로 돌아가야 물건을 넣고 갈아 내서 우리가 맘대로 먹을 수 있다 이 소리죠.

두서없이 이렇게 얘길 하는 것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이런 것을 잠수함에 해도, 더 적게 하고도 크게 성과를 이루려고 연구들을 하는 판국에, 우리는 우리대로 기가 약해지고, 의술이 약해서가 아니라 약재가 아주 약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감기약이 있다. 그러면 감기약을 먹고 나아야 할 텐데 감기약이, 이 약재가 벌써 사람으로 치면 기가 약해지고 그 성분이 약해졌어요, 똑같은 약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리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자유자재로서 내가 어디가 아프면, 즉 말하자면 콩팥이 잘못됐다, 걸러 주질 못한다 이런 때 그 콩팥에 대한 문제를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그대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충당이 됩니다. 이 식품이나 동물, 생물, 무정물 전부 약 아닌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살 수 있는 거라 이 소립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살 수 없다면 앞으론 살기가 더 어렵고 쓰러지는 사람이, 병자가 더 많을 테죠.

요새 정신 환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러는데 그것도 이런 도리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 이 소립니다. 그것은 약으로 해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속의 그 의식과 이 마음, 이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영계가 들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두 가집니까? 머리에서 나는 정신병도 있고 타의에서 세균으로 그런 법도 있고 유전으로 그러한 법도 있고 영계로 해서 그런 법도 있고 인과로 인해서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약으로 해서 낫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주처에서, 그 주처로 아주 집어 주는 거죠. 모든 거를, 즉 말하자면 유전이다 또는 영계다 인과다 하는 것도 이 물 한 방울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이것이 한 그릇의 물이지 두 그릇의 물입니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의식은 체가 없기 때문에 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하면 벌써 둘이든 셋이든 하나가 돼 버려요. 그러면 '네가 끌고 가지 않는다면 어떡하느냐. 네가 끌고 가야지!' 할 때 바로 이것이 올바르게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도둑질을 너무 해서 그 회사가 망하게 됐다고요. 어느 분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도둑질해 내는 사람은 증거를 잡지는 못 했지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짐작은 합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 모든 관리를 맡기고 진급을 시키고 보수를 더 주고, 너희들 둘밖에는 이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 두 사람한테 맡기고부터 회사에 도둑을 안 맞더랍니다. 도둑도 안 맞고 또 회사가 잘되는 거예요. 좀도둑이나 대도둑이나 이게 있으면요, 너도 해먹고 너도 해먹고 그러면 회사 망하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듯이 이 속에도 말입니다,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이 악업 선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시고 거기서 별생각 다 나와도 거기다 다 맡겨 놓으시고 '너밖에는 나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너밖에는 나를 살릴 수 없다. 너밖에는 내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없다.' 하고선 그냥 맡겨 버린다면, 이거 보세요. 예전에 종을 부려도 이름을 부르고 "야, 이건 너밖에 심부름할 수가 없다. 애, 너밖에는 이걸 해 가져올 수 없으니 이것 좀 해 가져오너라." 하고 참 좋게 추켜 주면서 하면 몇십 리라도,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해 가져옵니다, 군말 없이.

그러나 아주 종이니까 너는 으레 그런 걸 하려니 하고선 그냥 "야! 너 이거 좀 해 가져와." 이러고 할 때는 빗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빗나갈 수도 있거니와 가다가 뺄 수도 있죠. 또 "애, 이거 해 가져와." 이러지도 않았다면 "애, 아무개야!" 하고 이름만 부르면, "주인공!" 이러고 이름만 부르고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를 하라는 줄 압니까? "예." 그러고선 왔는데 뭘 하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도로 돌아갔다가 또 "주인공!" 그러면 또 와요. 또 왔다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죠. 이렇듯이 주인공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인공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단호한 믿음! 이것이 바로 진실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의사인가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 됐는데 거기 갈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폐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병자들을 봐야 할 테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서 전화로다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전화기를 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나서 무조건이지, 무조건 심부름꾼이 돼야지 무조건 심부름꾼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 되겠다. 그게 무슨 섭섭하고 섭섭하지 않고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선 "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잠깐 말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나를 위해 준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를, 누구든지 따르더라도 세 가지를 보시고 따르세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말과 행과 마음 씀씀이, 이거. 그것도 믿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요. 믿는 건 여러분의 주인공을 믿으세요. 이 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또 대신 죽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 아파 줄 사람도 없고요. 대신 똥 눠 줄 사람, 먹어 줄 사람, 자 줄 사람 이런 것도 없죠? 여러분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면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다시 구름이 흩어지면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이러는 거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수억겁 광년을 미생물로부터 거치면서 인간이 제일 나중에 태어났다고 보는데 그게 진화되는 과정이죠. 다 같이 그렇게 생겼지만 인간이 제일 나중에 됐다 하는 거는 진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서 쫓고 쫓기면서 인간까지 왔는데 그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간대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필수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세계로 승진을 하느냐 또는 냄새만 맡고 사는 세계로 좌천을 하느냐. 그런 삼차원 세계의 체로 거르는 세상, 이 삼차원 세계 중세계에서 다시금 또 돌아서 이거 뭘로 태어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 모르면 바로 그렇게 팔자 운명이 있는 것이고, 자기 한 것대로 자기한테 올 것이고,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지은 것은 알고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모든 거를, 그 입력이 된 거를 없애 버려라. 지금 자꾸 입력을 해 넣으면 그 앞서 것이 다 없어짐으로써 우리는 편리하게 살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자꾸, 이렇게 금방 될 것도 안 돼, 막으니까. 그게 인과거든. 자빠져도 코가 깨지죠. 허어, 그런 거 뭐, 한두 건입니까.

그래 가지고 날더러 와서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스님, 아휴! 지금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됐는데 집이 팔려야 됩니다. 은행으로 그냥 당장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럽니다, 또. 그럼 내가 복덕방이 돼야 되거든요. 하하하. 그래서 나는 그러죠. "당신 속에 복덕방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서기도 있고 또 관세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용신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러니 당신 속에다가 당신이 시켜, 당신이. 당신이 해!" 이럽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정히 당신이 모자랄 때 나도 거기 있잖아! 둘이 아니야, 이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복덕방만 되는 게 아니라 삼신인 저, 뭡니까? 애도 받아야 하고 뭐, 남의 손(孫) 받는 데도요, 그것도 있죠.

어느 신도의 올케가요, 아주 가난했고 남편은 병들었고 참, 이 속에 옷을 못 입어서 배가 다 나올 지경으로 극히 기가 막혔습니다. 어린애를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가 보니까 거꾸로 앉았다고 배를 째야 된다고 그러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속에 옷도 없어서 못 입은 사람이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그래서 "아휴, 그 의사 오진했단 말이야. 오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진한 거야. 거꾸로 있을 리가 없어." 그랬죠, 어떡합니까.

그 의사가 오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안정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 놓고 생각을 깊이, 그 배를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 애는 걔대로 울고 돌아서고 "이삼 일, 삼 일만 있다가 나한테 다시 오너라." 그래 놓곤 이제 나는 나대로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아이, 제대로 돌아서서 어린애를 낳을 수 있게 됐더군요. 그러니까 병원에 다시 가 봐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통을 받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야, 나는 오진을 안 했는데…." 이러면서 "아, 거반 바로 다 섰네요. 아휴 참,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만 '의사 선생님이 잘 돌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럼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어린애를 돌봐 달라고 그래라." 그러고선 보냈어요. 보내고 돈을 준비해서 암암리에 전달할 수 있도록 딴 사람을 시켰죠.

그런데 이런 적도 있어요. 어린애를 배기만 하면 낙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낙태가 돼서 쫓겨나게 됐어요. 부잣집인데 그냥 쫓아냈어요. 친정으로 갔어요, 인제. 그래 친정으로 가서 이 선원에 왔어요. 어린애만 생기면 한두 달만 되면 벌써 낙태가 되는 거예요. 외아들인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모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고 아마 혼인을 시키려고, 여기 득보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색시도 아주 참해요. 그래서 친어머니하고 와서 울더군요.

그 우는 거를 보니까, 난 참 약하거든.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에이 참, 어린애 낳고 사는 게 뭔지. 남이 낳은 애 좀 기르면 어떤가. 아이, 꼭 그냥 낳아야만 하나.' 이러고선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그러면 어린애 낳으면 나 뭐 해 줄 거야?" 웃으면서 그러니까, 웃기려고요. 그러니까 쭈물쭈물하면서 하는 소리가 "제가 뭐 잡숫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사다 드리죠." 그래요. 그래서 "야, 잡숫고 싶은 거 사다 드리기 이전에 너나 맛있는 거 사다 먹어. 어서 가거라." 그랬는데, 그달부터 어린앨 배서 낳았는데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남편이 정은 있으니까 아마 친정으로 왔던 모양이죠. 하하하. 그래 가지고 그 시집에서요, 내쫓았던 며느리 찾으러 오느라고 사돈한테 두 손 싹싹 빌고 그냥 데려갔다고요. 저, 상쾌하데요, 그럴 때는요.

그런데요, 사람사람이 모두가 이 도리를 공부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전화가 없으면 아주 갑갑하듯이 필수적으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이걸 떠나서 말입니다.

>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
> 하나도 부처라고 하는 게 없는 것이 부처예요.
> 부처라고 했다면 벌써 부처가 아닙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4월 28일 국외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3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마음과학에 대한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3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농협, 355-0061-8192-63) 한나무인성교육연구회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현불논단 |

늘 푸른 마음으로



법산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장

인류 스승 부처님이 오신 축제의 달
중생 찌든 마음 아름답게 밝히는 날
푸른 하늘 보며 허공에 날려 버리고
아픔 없는 오월 아름다움으로 회귀를

자연 섭리 등지는 이유는 탐착의 소치
유혹 이끌려 시기 질투로 싸우고 있다
탐착 버리면 지혜가 푸르게 피어난다

내 마음!
바탕은 어떤 색일까?
형상은 어떤 모양일까?
하나일까?
여럿일까?

하늘은 색상이 없어 걸림이 없고
마음도 하늘과 같아서 걸릴 것이 없다
하늘을 헤아릴 수 없듯이
마음도 또한 그러하거늘
어디에 걸릴 것이 있으랴.

하늘은 텅~ 비어 푸르고
바다는 맑은 하늘을 마주하여 푸르고
청산은 모든 생명의 자성을 나투어 푸르도다.

한마음 알고 싶거든 하늘을 보고 비우고
한 생각 괴로우면 푸른 바다에 씻어버리고
성질이 나거들랑 청산을 지나는 흰 구름에 실어 보내게나.

늘 푸른 마음으로 살자. 오월의 신록처럼 싱거롭게 살자.

하늘은 텅 비어 시비가 본래 없고, 바다는 넉넉하여 어떤 사물이 들어와도 한 맛으로 동화하고, 청산은 풍요로워 모든 생명을 아름답게 길러주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월은 생명력이 신성하게 피어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다.

시인들은 오월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 독립운동가 김영랑(1903~1950)의 오월의 시에 ' 삶의 숨결도 생명의 용기 더하는 오월/ 이기와 욕심으로 감겨진 눈을 뜨게 하십시오/ 눈떠서 햇살 보게 하십시오/ 구석구석 어둡을 털어내는/ 빛의 자녀답게 하십시오' 라고 했다.

김옥준은 오월의 시에 '출렁이는 오월의 평화 속에/ 하늘 빛 들판 빛 산의 빛이/ 오월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프르름과 감흥으로 / 수 놓으며 꽃도 하늘도/ 지원을 보내고/ 새소리 하늘 소리 나직이 좋은 날/ 물빛 반짝반짝/ 오월이 가는구나' 라고 했다.

특히 인류의 멋진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 축제의 달 오늘은 중생의 찌든 마음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달이다.

설사 마음을 찌르는 아픔도 있는 괴롭고 슬픈 사연도 있었지만 오월의 푸른 하늘을 보며 허공 속에 날려 버리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오월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자.

모든 생명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의 섭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거역해봐야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등지는 이유는 오직 탐착의 소치이다. 욕심내고 집착하면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반드시 타서 죽을 것이 분명한데 어리석은 인간은 우선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탐착의 노예가 되어 시기와 질투로 비방하고 싸우며 죽어가고 있다.

탐착심을 버리면 싸울 일이 없고 싸울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의 밝은 지혜가 늘 푸르게 피어나며 늘 푸른 오월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합께하는 정토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가자! 내 마음 오월의 하늘이 되고
라이락 이팝나무의 향기가 되어
오월의 시를 노래하며
아름답게 살자.



송마나의
시절인연

야구 경기

온갖 꽃과 나무들이 함성을 터뜨리는 5월이다. 야구장 담장 너머로도 환호 소리가 터져 나온다. 누구나 아름다운 계절에는 집 밖으로 나와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을 펴고 기지개를 활짝 켜는 것인지. 야구장 스탠드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탄성과 환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야구는 10명으로 이뤄진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며 승패를 겨루는 구기 경기이다. 공격하는 쪽은 상대편 투수가 던진 공을 방망이로 치고 경기장 내의 특정 지점을 돌아 홈으로 돌아오면 점수를 얻는다. 투수가 시속 140km에 달하는 속도로 던지는 공은 공포를 야기하지만 타자는 본능적으로 그 공을 배트로 받아쳐야 한다. 타자가 총알처럼 날아오는 공을 쳐서 출루하지 못하면 그만 아웃당하기 때문이다. 수비하는 팀의 선수들은 타자가 친 공을 온몸으로 받아내 상대팀이 다음 루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야구는 다른 구기 종목과는 달리 세 사람의 죽음이 게임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 루를 밟느냐, 밟지 못하게 하느냐는 삶과 죽음의 치열한 공방전 같다.



그림 · 최주현

이처럼 죽음을 흥미진진하게 여기는 게임이 어디 있을까. 이런 까닭에 김흥중 문화사회학 교수는 "야구에는 죽음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했는지 모른다.

공격하고 방어하는 두 팀은 공평하게 9회씩 경기를 치른다. 삶과 죽음이 차별 없이 교차하고 있다. 관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응원한다. 죽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야구 경기장 안에서는 죽음에도 환호를 보낸다.

야구는 집(홈 플레이트)에서 시작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게임이다. 타자는 집을 떠나 1루, 2루, 3루를 거쳐 집으로 귀환한다. 집이라 해도 같은 팀의 동료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불쑥 등장한 타자가 공을 치고 집을 떠나도 공간을 얻지 못하고 다이아몬드의 선분을 전력 질주하여 집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그 집을 0으로 비유해도 무방하리라.

집은 무(無)로서 만물의 근원(根源)인 셈이다. 노자는 천하 만물은 유(有)에서 생기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고 했다. 만물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영원한 반복을 한다. 인간도 태어나서 죽으면 무로 돌아가지만, 다시 조건 따라 태어나기 마련이다. 야구는 옛날 봄의 도래를 찬미하는 어느 종족의 집합 의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바로 영원회귀(永遠回歸)에 기초한다 하겠다.

중국 당나라 때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萬法歸一 一歸何處)"라고 물었다. 만법의 만법은 공(空)일 터. 야구 타자는 그 공마저도 방망이로 치고 공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닐까?

〈작가〉

社 說

청년불자 양성 마중물 기대한다

지난 1월 17일 신년기자회견서 '순례 대중화' 와 '청년 포교' 라는 두 축으로 한 해 포교 활성화에 진력하겠다고 밝힌 조계종 제8대 포교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전국 각지의 순례길을 개발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전법 간담회, 장학금 지원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의지는 지난 6일 포교원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전법 ON 포교 원력 선포식' 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포교원은 올해를 '포교 역량 전문화 원년의 해' 로 천명하며 "청년세대와 눈높이를 맞추는 포교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지난 2월 사단법인이 된 상월결사와의 업무협약이 밑바탕이 됐다. 포교원과 상월결사는 당시 "1~2년에 그치는 사업이 아닌 1차 10년 계획을 세워 포교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는데, 1사찰 1학교 결연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학생청년전법단을 축으로 위원회를 꾸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2019년 청년대학생전법단과 대불련이 발표한 '청년불자 종교의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44%가 무교거나 이웃종교인이었다. 불자가 아니지만 불교동아리에 가입한 배경으로는 '불교문화에 대한 호기심' 이 꼽힌다. 종교적 신심보다 템플스테이, 연등회, 사찰음식과 같은 하나의 문화가 청년들의 마음을 자극한 셈이다.

이에 따라 불교동아리에선 학생들에게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학생의 상황에 공감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거나 학업을 돕는 장학금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포교원과 전국 사찰, 포교 · 신도단체들이 불교가 궁금해서 찾아온 청년에게 흥미를 돋워 '노인의 종교' 라는 오명을 벗어나길 기대한다.

국회 정각회 창립 40주년에 부쳐

국회 정각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1978년 불자 국회의원들의 소모임이 전신인 국회 정각회는 1983년 4월 27일에 정식으로 창립됐다.

창립 이래 국회 정각회는 불교를 외호하는 호법신장으로서, 불교계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역할을 했다. 특히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법안 제 · 개정과 불교방송 개국, 군종장교 비율조정, 경승제도 신설 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제14대 국회였던 1995년 4월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관에 불교법당인 '정각선원' 이 개설됐다. 2009년부터 매월 첫째 수요일 정기법회를 시작했으며, 코로나19 당시에는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법회를 봉행했다. 제11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정각회는 현재 국회의원 47명, 국회 직원 72명 총 119명이 활동 중이다.

5월 10일 열린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는 여야를 뛰어 넘어 화합의 정치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도 법어를 통해 "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는 보살의 원력으로 세상의 고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세계의 정세는 혼탁하고 한국사회 내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인이다. 부처님이 서원한 '중생 구제' 원력과 정치인들의 '국태민안' 목표는 결국 '이타행' 으로 맞닿는다.

국회 정각회는 이제 '불혹' 의 나이가 됐다. 중년이 됐다는 것은 완숙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회 정각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완숙한 화쟁의 정치를 펼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전수 교육 안내말씀

불교문화는 부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이래로 한국불교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와 아울러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적으로 불교역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모든 불교 의례중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은 불교문화의례에 가장 핵심이며 등상불이 불복장을 통해서 완전한 부처님으로 화현했을 때 불공의식 예수재 수륙재 시식 제불공 및 범패 태징 바라 나비춤 법고춤 살풀이 화관무 진도 씻김굿등 민속문화까지 모든 의례 의식이 구현되었다.

특히 불복장은 무형에서 유형을 만드러내는 과정을 조상경에서 밝혔는데 용허스님이 자료를 수집하시고 화악스님이 경전과 제방 선지식을 통하여 고증해서 완성한것이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본이다 화악스님의 교판에 의하면 조상경은 신해행증(信解行證) 사문(四門)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첫째 신(信): 등상불을 살아 계시는 부처님으로 철저히 믿을 것
둘째 해(解): 복장에 들어갈 250여 가지의 물품을 왜 넣어야 하는지 각각의 뜻을 잘 알아야 하고 의식할때의 마음가짐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셋째 행(行): 삽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각종 진언을 지송할 때 사부대중이 동심 일체가 되어 모두 금강신으로 들어가 작법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수행 정진이며
넷째 증(證): 조성불을 화현불로 탄생시키는 의식 즉 점안작법 점필법이 있다.

이상의 개괄적 설명과 같이 근본 부처님을 완성하는 의식 작법이야 말로 모든 의례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의식 작법은 불교 전체 불교인의 불교문화 의식이기에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완전개방해서 누구나 공유하고 자타일시 성불을 기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증명: 활안정섭(서울 금강선원 총재)
범청상명(선안사 전 주지 및 현 선원장)
의식 법주 겸 강주 : 담양 용화사 주지 도월수진 (전 무형문화재 제 139호)

- 아 래 -

지원자격: 불교계 비구 비구니 교법사 교임(AI인공지능 조예가 있는분 대 환영)
개강일시: 2023년 양 5월 31일(음 4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1년과정 1학기 2개월 2학기 9월부터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모집인원: ○○명
수 강 료: 매월 20만원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다운로드 **홈페이지:** (www.dyhs.kr(담양용화사))
2. 각 종단 승적증명서(1부) 또는 승려증 사본 교임확인서
3. 반명함판 사진 3매
교육장소: 담양 용화사 대웅보전
접 수: 수시모집
교 과 서: 별도 (개강일 분배)

교육원은 전통의식을 여법히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하며 출재가자도 환영 전과정을 통하여 수료 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 자격증을 부여함 (수료증 포함)

한 국 불 교 전 통 불복장 교육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
담양 용화사 전화: 061-381-2683 팩스: 381-2749
e-mail: hb480806@hanmail.net
사무국장 : 국 진 (010-5048-7782)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